
第81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5年10月24日(火) 午前10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市立大學校所管1994會計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2. 公務員教育院所管1994會計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3. 世宗文化會館所管1994會計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4. 公報官所管1994會計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5. 1995年度行政事務監查計劃書採擇의件
-

審査된案件

1. 市立大學校所管1994會計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 2面
 2. 公務員教育院所管1994會計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 35面
 3. 世宗文化會館所管1994會計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 55面
 4. 公報官所管1994會計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 107面
 5. 1995年度行政事務監查計劃書採擇의件 ... 107面
-

(10時 37分 開議)

○委員長 安順德 ; 座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1回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第4次 文化教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오늘도 決算案에 대한 審査를 계속하겠습니다.

1. 市立大學校所管1994會計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 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委員長 安順德; 議事日程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市立大學校所管 1994會計年度 서울特別市一般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먼저 市立大學校 總長님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長 金鎮炫; 尊敬하는 安順德 委員長님과 文化教育委員會 委員 여러분, 오늘 완전한 地方自治 時代를 맞이해서 저희 市立大學校의 94會計年度 一般會計 歲入·歲出 豫算 決算을 審議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새로운 완전한 地方自治 時代의 議會 구성과 더불어서 市立大學校에 보내 주신 여러 委員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미 지난 9月 27日에 서울시와 서울시議會 代表와 教育界 代表, 市民 代表, 그리고 市立大學校로 구성된 서울시立大學校 運營委員會에서 첫 會議를 가졌으며, 이러한 市立大學校 運營委員會 發足은 바로 완전한 地方自治 時代의 한 좋은 선

물이라고 저희들은 반갑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市立大學校가 98年度の 教育部 綜合 評價를 받는 데 대비해서 基準點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 며, 2000年代에 가서는 서울市民을 위한 特性화된 大學, 그 리고 世界的으로 都市綜合大學으로 特性化되고 專門化된 大 學으로 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參席한 저희 學校의 補職者들을 紹介해 올 리고자 합니다.

(幹部紹介 : 學生處長 車岷煥, 事務局長 閔庚台, 教務副處長 閔鉉洙, 企劃研究室 副室長 崔在星)

姜哲圭 教務處長과 金尙培 企劃研究室長은 현재 教職員 4名 과 더불어 한 팀이 되어서 美國과 日本의 市立大學 經營을 研究하고자 出張 中에 있습니다. 이 점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委員長님과 委員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閔庚 台 事務局長으로 하여금 94年度 一般會計 歲入·歲出 豫算 決算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事務局長 閔庚台; 事務局長입니다.

.....
(報告)

市立大學校所管94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決算 提案說明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가 94年度 豫算을 執行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시다만, 委員님께서 보시기에 아 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指 導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豫算編成에 적극 反映해가지

고 豫算編成 과정에서 부터 效率性和 能率性 있는 豫算이 執行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提案說明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原案대로 決算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安順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尹炳國; 專門委員 尹炳國입니다.

市立大學校所管 1994會計年度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檢討報告書 3페이지 부분부터 報告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會計年度 서울시立大學校所管 一般會計 歲入·歲出 決算概要를 말씀드리면, 歲入決算額은 豫算額 17億 7,100萬원에 收納額은 豫算額의 137.4 %인 24億 3,400萬원이며, 歲出決算額은 豫算額 151億 1,100萬원에 支出原因行爲額은 豫算現額對比 88.3%인 133億 5,400萬원입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歲入의 경우 豫算額對比 37%인 6億 6,000萬원이 增加된 것은 增員·增科에 의한 登錄金, 授業料 收入의 증가에 기인한바, 學生數 增員에 의한 歲入증가가 예상된다면 가능한 한 당초 豫算編成時 反映하여 豫算과 決算額과의 差額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豫算의 계획적인 編成과 효율적인 執行의 기준이 되는 不用額은 豫算現額對比 11.6%인 17億 5,800萬원이 발생하여 前年度對比 1.2%가 상승하여 다소 不用率이 높아진 점이指摘될 수 있으나, 豫算編成時 일정 기준에 의거 編成하여 事前豫測이 가능한 一般運營費 部門과 補償金, 借入金利子 등의 項目에서 過多한 不用額이 발생한 것은 豫算編成時 충분한

檢討가 있어야 함에도 前年度 기준에 의거, 선례답습적으로 豫算 編成한데 기인한 것으로 思料가 됩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執行部の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質疑 答辯의 순서인데 異議가 없으시다면 원활한 審査 進行을 위하여 一問一答式으로 進行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一問一答式으로 진행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鄭韓植 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鄭韓植 委員; 鄭韓植 委員입니다.

방금 전 事務局長의 報告에 의하면 經常費 中에서 指針에 의해서 5%를 節減하여야 한다고 報告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네, 그렇습니다.

○鄭韓植 委員; 그렇다면 指針이 없었더라면 5% 節減이 불가능했겠습니까. 그렇죠? 指針 때문에 5%를 節減한 것이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不要不急하거나 豫算의 浪費性 있는 부분을 줄이고 節減精神 차원에서 節減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鄭韓植 委員; 그러면 指針 때문에 또 10%를 節減할 수 있는데 5%밖에 못할 수도 있겠습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지금 저희가 節減率이 5% 훨씬 넘어가고 10%가 넘었습니다. 그 指針 때문에 節減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鄭韓植 委員; 다음 質疑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不用額 中에서 豫算執行 殘額이 過多해서 不用率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을 勘案해서 豫算編成을 할 수 없을까요? 예컨대 落札差額을 예상할 수 없습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다른 豫算은 前年度 決算을 勘案해가지고 來年度 豫算부터는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豫算會計法上에 落札差額은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工事費나 物品 購入에 따른 落札差額만은 재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 사용할 수가 없고 不用額으로 移越돼서 다음年度 豫算에 다시 編成돼서 執行이 되도록, 이것은 또 豫算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機關에서 남는 殘額을 일방적으로 豫算編成 당초 目的에 위배되게 編成해서 쓰지 않는 이런 抑制 指針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鄭韓植 委員; 다음 質疑를 계속하겠습니다.

補償金은 매년 이렇게 不用額 處理가 되어야 됩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補償金 中에서는 人件費的 性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敎員研究費라든가 이런 등등이 豫算에는 定員으로 모든 것이 豫算이 編成이 되는데 어느 機關이나 缺員이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缺員만큼의 豫算이 不用額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鄭韓植 委員;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IBRD借款 借入金 利子を 당초에는 學校에서 計上을 했는데 教育部에서 代納을 해 주었다고 答辯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債務의 負擔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教育部에서 냐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學校에서 내야 되는 것입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IBRD借款은 저희가 教育部에서 支援해 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教育部에서 支援해 주기 때문에 元金이나 利子가 受益者負擔原則에 의하면 저희 學校가 負擔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利子 부분은 당초에 國庫에서 支援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支援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가 豫算을 編成했는데 다행히 年末에 가서 國庫에서 補助를 해 주겠다 해가지고 教育部가 執行을 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저희 豫算을 안 써도 됐습니다.

○鄭韓植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른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化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化 委員; 林鍾化 委員입니다.

歲入·歲出에 대한 決算 報告書를 봐서 不用額이 11.6%가 나왔는데 저는 이 不用額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贊成입니다. 왜냐하면 學校 運營하다 보면 不用額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學校에서는 豫算을 浪費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 豫算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年度에 豫算을 執行하는데 곤란하기 때문에 豫算을 浪費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不用額이 11.6%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뭐냐, 授業料라든지 登錄金은 94年度에 入學 定員을 모집하게 되면 93年度에 學生이 몇 名이다, 또 登錄金이 얼마다 그런 정도는 學校側에서 충분한 예측 가능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不用額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學校에서 歲入·歲出에 대한 세밀한 檢討가 없었다는 것이 指摘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세밀히 研究 檢討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安順德 委員長, 鄭韓植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鄭韓植; 趙相勳 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趙相勳 委員; 먼저 委員長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요, 例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市立大 事務局長 한번 나와 보십시오. 지금 事務局長 赴
任하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8月 16日字 事務局長으로 왔고요, 그 전
에 人事課長했습니다.

○趙相勳 委員; 어디 人事課長?

○事務局長 閔庚台; 市 本廳 人事課長이요.

○趙相勳 委員; 그러면 職級이 어떻게 되시죠, 事務局長님 되
시면?

○事務局長 閔庚台; 副理事官입니다, 3級입니다.

○趙相勳 委員; 副理事官級 정도 되시면 業務報告, 특히 豫
算·決算報告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대충? 그런데 지금
市立大는 이렇게 4장짜리가 왔습니다. 94年度에 어떤 內譯으
로 이러한 費用이 잘 잡혀있는지도 지금 전혀 우리들한테 提
供이 안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午後에 할 公務員教育
院 資料입니다. 不用에 대한 철저한 內譯까지 다 나와 있어
요. 94年度 豫算이 어떤 內容으로 策定이 됐었다가 어떤 이
유로 未執行됐다라는 內容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150億원이 넘는 서울市的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資料가 不實해요, 아주. 물론 總長님이나 또 우
리 企劃管理室長님이나, 敎務處長님이나, 여러 敎授님들이 계

시고, 또 學長님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몇 장짜리를 내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副理事官을 하신다니까 철저하게 資料準備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委員長님도 이 會議가 끝나시면 엄중히 警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네.

○趙相勳 委員; 그럼 質疑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歲出項目에서 市立大學校 運營이 細項으로 되어 있고, 細細項이 機關運營, 學事管理, 施設管理, 主要事業費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指針上 맞는 細細項 部分입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豫算編成指針에 맞는 細細項目입니다.

○趙相勳委員; 그런데 대개 機關運營하고 人件費는 細細項에서 많이 分離를 하는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하나로 뭉쳐놨죠? 人件費와 機關運營이 한 細細項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目은 기재를 안해 놔는데, 人件費하고 機關運營費는 분명히 項 自體로 보아서 다른 項이라고 판단.....

○事務局長 閔庚台; 細細項에 機關運營이 돼 있고, 目에 이제 세 분류, 基本給, 手當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趙相勳 委員; 그런데 다른 部署에 보면 대부분 細細項에서 人件費 項目과 機關運營 項目이 다 分離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같은 경우는 機關運營에 모두 人件費까지 포함시키다보니까 전혀 內容이 어떻게, 福利厚生費하고 手當하고 基本給하고 이것이 어떻게 管理가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理由가 있습니까? 人件費는 어디 다른 國費로 支給이 되나요?

○事務局長 閔庚台; 아닙니다. 人件費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趙相勳 委員; 그 理由 좀 밝혀 주십시오.

○事務局長 閔庚台; 그 年度마다 豫算編成 項이 다른데요, 94年度에는 저희 大學校가 이런 細細項으로 돼 있었고, 今年度는 좀 달라졌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相勳 委員;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基本給, 手當, 福利厚生費나 補償 같은 경우는 한 人件費 細項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機關運營이 되어야만 분명 區分이 되고, 어느정도 費用들이 성질별로 支出되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閔庚台; 상세한 부분은 별도 委員님이 필요하시다면 詳細한 資料를 다시 提出해 드리겠습니다.

○趙相勳 委員; 例년에 보면 그 施設問題, 施設課에서 發注하거나 隨意契約한 施設問題가 굉장히 많이 問題提起가 되었었죠? 아십니까, 施設課長님?

○事務局長 閔庚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지.....

○趙相勳 委員; 그러니까 市立大에서 發注하는 여러 用役이나 또는 施設管理나 또 施設施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問題가 많이 提起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速記錄에 있는 것이니까 8월에 赴任하셔서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 內容은 數次에 걸쳐서 指摘이 되어 왔었습니다.

여기 전혀 施設費로 어떠한 內容들이 契約이 되거나, 支出이 됐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어느 目에 가야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施設管理에 施設費가 있습니다. 1億 9,600萬원, 豫算會計 보시면. 이것이 주로 施設費입니다. 그 다음에 施設費는 新規工事, 増築이나 新築의 주로 豫算이 되

겠고, 施設附帶費는 維持管理費가 되겠습니다, 補修費. 그것이 施設管理 施設費 1億 9,600萬원, 그 다음에 主要事業費에 施設附帶費 1億 2,000萬원, 이것이 施設費…….

○趙相勳 委員; 94年度에 發注하였거나 施工했던 큰 工事は 없습니까? 綜合講義棟이나 寄宿舍나?

○事務局長 閔庚台;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全部 1億 未滿, 1,000萬원 未滿에 제가 알기로는, 精確한 資料는 나중에, 12件인데 全部 1,000萬원 未滿의 小工事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趙相勳 委員; 단순히 設計用役만 發注가 된 狀態인가요?

○事務局長 閔庚台; 設計用役뿐이 아니고 이제 補修費 주로 나갔고 新築建物에 대한 豫算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趙相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學事管理에서 資産取得費를 보면 不用額이 한 2億원 정도가 남았죠? 그러니까 이 不用額은 學事管理上 資産取得이라 한다면 圖書購入이나 아니면 研究機資材 購入인데 이것을 왜 不用處理를 했죠? 明示移越을 하셔도 괜찮을텐데, 豫算節減 次元입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豫算節減 次元이 아니고, 財産이나 施設에만 落札差額 때문에 불가피 발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相勳 委員; 落札差額,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劉大運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大運 委員; 劉大運 委員입니다

94歲入決算現況에서 其他 雜收入이 1億 262萬 1,940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雜收入입니까, 이것이?

○事務局長 閔庚台; 이것이 辨償金은 우리 學校 構內에 民間人이 지금 學校 敷地 內에 일부 占有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辨償違約金이 4,900萬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利子收入과 그 다음에 大學院에서 일부 들어오는 收入, 이런 등등이 雜收入이 되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여기 特殊大學院을 運營해가지고 支出하고 남은 돈이 雜收入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그 남은 돈은 雜收入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特別基金으로 管理하고 있습니다.

○劉大運 委員; 特殊大學院을 運營해서 支出하고 남은 돈은 어떤 돈으로 管理한다고요?

○事務局長 閔庚台; 우리 大學發展特別基金을 앞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그 金額으로 特別管理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劉大運 委員; 얼마 收入에서 얼마 支出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그 金額은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報告를 詳細하게 드리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이봐요 事務局長, 答辯하려고 나왔어요, 그 자리 지키려고 나왔어요? 答辯해 봐요. 전혀 業務도 파악 못하면서 왜 答辯席에 서요? 書面으로 提出해 주세요, 이부분. 그리고 其他 雜收入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1億 262萬 1,940원에 대한 歲入部分에 대해서 그냥 총망라해가지고 其他 雜收入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땅을 賃貸해서 얻은 收入이 얼마, 또 店鋪를 賃貸해서 얻은 收入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資料가 와야지, 이것은 委員들이 파악하라고 준 資料가 아니고, 쉽게 넘어가기 위한 함정자

료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어떤 內容입니까, 이것이?
○事務局長 閔庚奘; 죄송합니다. 정확한 資料는 書面으로, 諒解해 주신다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事務局長, 業務把握할 時期가 넘었잖아요. 지금 事務局長으로 赴任된 지가 몇 個月 되었어요?

○事務局長 閔庚奘; 2個月 되었습니다.

○劉大運 委員; 2個月 만에 業務把握을 못합니까?

市立大學校의 特殊性上 學事部分에는 各 學科長님들이나 補職教授님들이 다 하고 계시고, 나머지 一般管理에서 事務局長이 하게 되는데, 그 파악도 아직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事務局長 閔庚奘;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未洽한 點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파악을 해서.....

○劉大運 委員; 이것 書面으로 答辯해 주시고요, 書面으로 答辯해 줄 수 있죠?

○事務局長 閔庚奘; 네, 答辯드리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언제까지 줄 것입니까? 來日까지 줄 수 있죠?

○事務局長 閔庚奘; 네, 來日까지 드리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全 資料하고 동시에 내일까지 주는 것입니다.

○事務局長 閔庚奘; 네.

○劉大運 委員; 그리고 機關運營費에서 87.9%를 執行하고 學事管理에서 90.1%를 執行을 했습니다. 施設管理費는 80.1%를 執行을 했는데, 여기서 아까 業務報告 中에 豫算節減이라는 單語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既已 豫算을 承認을 받고 執行을 한다면 豫算節減이라는 單語가 밥을 한끼 덜 먹어야 된 다든지 어디에서 節減했다는 얘기에요? 그것 좀 한번 答辯들어봅시다.

節減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節減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前年度에는 豫算節減이라는 指針이 없으니까 豫算을 過大編成을 해서 마구 썼다는 意味거든요. 그러니까 今年度에는 豫算을 節減할 수가 있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 그런 뜻은 아니고, 浪費要因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除去를 하고, 조금 前에 말씀드렸지만 여름철에 에너지節約 次元에서 우리가 昇降機, 이런 것을 時間을 短縮하고, 節電 등등 이런 次元으로 節減의 노력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 次元은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그 %가 이 數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치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歲出部分을 살펴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市教育廳의 경우에 豫備費는 使用하고 事後承認받기가 까다로운 관계로 인해서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반면에 包括事業費는 指針을 들어서 마구 사용을 했어요. 여기에서 機關運營費라는 것이 機關 共通運營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事務局長 閔庚台; 共通運營費지만 目別로는 전부 細細項目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目的의 目的에 맞도록 쓰게 되어 있습니다.

○劉大運 委員; 물론이죠, 물론 그런데 여기에서 機關運營費와 學事管理費에서 상당액수가 不用額이 나왔거든요. 이 不用額이 나왔다는 얘기는 學事運營이나 機關運營에 지장이 없었느냐 이것이에요.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事務局長 閔庚台; 지장은 없었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렇다면 來年度의 豫算은 이 %만큼 削減해도 되겠네요, 지장이 없었다면. 그런 뜻 아닙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物品購入이나 施設費 같은 것은 落札差額이 發生한 것에 대해서는 再使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 發生한 것이고요, 또 人件費 이런 등등에서는 定員으로 策定이 되기 때문에 定員을 早期에 充원하고 하면 전부 使用할 수 있는 이런 部分이 되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지금 本委員이 質問하고 있는 것은 아까 答辯과 달리 다른 質問을 하고 있습니다. 落札差額으로 인한 不用은 어느 部署든 共通된 事項입니다. 예를 들어서 建築과 관련된 豫算은 100% 對比 85%를 落札 豫價로 하기 때문에 15%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적인 차원의 不用이 發生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說明할래요?

○事務局長 閔庚台; 이 部分에도 需用費라든가 이런 部分에도 物件 購入하고 할 경우에 落札差額이 發生을 합니다.

○劉大運 委員; 그 외적인 차원의 不用이 있다니까요. 몰라요? 本委員 아주 허술한 資料를 잠시 쳐다봐도 알 수 있겠는데 그런 것 말고, 내가 책상을 하나 사는데 100萬원을 豫算 잡아요, 物件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또 상대에 따라서 몇 萬원씩 오를 수 있으니까 100萬원을 잡아요. 그런데 80萬원 밖에 안 줬어. 이런 自然 不用額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이에요. 機關 運營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部分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적인 차원의 不用, 전혀 모르고 있어요?

○趙相勳 委員; 그 落札差額이라는 것이 豫算節減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豫算執行 殘額으로 포함됩니까?

○劉大運 委員; 이것 豫算節減과는 관계 없습니다.

○趙相勳 委員; 執行殘額이죠?

○事務局長 閔庚台; 그렇습니다.

○趙相勳 委員; 豫算節減하고 상관없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劉大運 委員; 상관없습니다. 答辯해 봐요.

○事務局長 閔庚台; 이 豫算이라는 것이 항상 예측을 하고 예상되는 豫算이기 때문에 執行過程과 豫算編成過程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差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것을 理解한다잖아요. 差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不用額은 理解를 하겠다, 그렇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不用額이 나왔다면 이것은 豫算編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事務局長 閔庚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豫算編成 당시에 예측을 미처 못해서 잘못 編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決算, 이번에 委員님께서 指摘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히, 면밀히 檢討해서 다음년도 豫算編成 때 적극 개선된 方向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저희 委員會는요, 우리 委員長님이나 幹事님들을 포함해서 本委員도 그렇습니다. 學校라는 特殊性에 비춰볼 때 研究費라든가 學事運營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로비스트가 되어서 豫算을 더 따드리려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事務局長께서 準備한 資料가 너무 不實하고, 또한 答辯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副理事官은 상당히 서울시에서 高位 公職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要職을 두루 겸임한 그런 經歷을 가

지고 계신데 이런 分野에 대해 該當 委員會 委員들한테 설득
력 있게 答辯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資料도 不用額이 나왔다
면 不用額이 나온 데 대한 妥當性 있는 얘기를 납득할 수 있
게 얘기하고 다음년도 豫算을 받을 때 이리이러한 問題點이
補完되었으므로 이 豫算을 쥐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
야지 우리보고 여기서 豫算 올려놓고 그냥 방망이 두드려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안그래요?

○事務局長 閔庚台; 그렇지는 않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答辯 자세가 그렇고
資料가 그런데.

○事務局長 閔庚台; 앞으로 상세하게 資料를 더 충분히 해서
提出하도록 하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러면 마지막으로 資料要求를 합니다. 여기
에 대한 資料입니다.

歲入部分과 歲出部分에 대해서, 또한 不用部分에 대해서 細
目的으로 資料를 提出해 주세요. 언제까지냐 하면 95年度 豫
算審議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한 3日前까지
委員長님이나 全 委員님에게 전부 배부해 주세요, 豫算編成할
당시에 參考가 되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特殊大學院을 運營하고 總收入, 總支
出, 나머지 金額 이것 또한 같은 내막으로써 資料를 提出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더 물어보겠는데요, 特殊大學院을 運營하고
남은 돈을 教授研究費로 轉用 活用할 수 없습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研究費는 별도 豫算編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劉大運 委員; 별도 豫算編成된 것 다 알죠. 本委員이 總長님한테 資料를 要求해서 95年度 研究費 豫算은 얼마고, 96年度 필요한 研究費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하고 내가 그 資料를 받았어요. 받아서 전부다 읽어 보고 參考하고 있습니다.

特殊大學院 運營하고 收入과 支出과 나머지 金額이 있다면 이 나머지 金額에 있어서는 융통성 있게 教授研究費로 支出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 된다는 理由를 한번 대봐요.

○事務局長 閔庚台; 저희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해 년도에 研究費로 支援하는 것보다는 이 金額을 가지고 發展基金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長期的으로 그 돈에서 利子를 가지고 支援해 주는 方法으로 이렇게 推進하려고, 發展基金을 만들려고 지금 推進하고 있습니다.

○劉大運 委員; 한번 말이죠, 그 部分에 대한 資金運用을 좀 더 융통성 있고 市立大學校를 더욱더 發展 向上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써의 豫算 使用處를 한번 찾아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豫算 中에서 研究費가 말이죠, 他 大學하고, 물론 私立大學은 예외겠지만, 서울大하고 비교할 때에도 엄청난 差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資金은 오히려, 特殊大學院 자체를 運營하는 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本委員은 不法입니다. 運營하면 안 됩니다. 맞죠?

運營하면 안 되나 우리 市議會가 그 정도는 융통성 있게 넘어간다는 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殘餘金額만큼은 고생하고 研究하는 教授님들에게 研究費로 말이죠, 支援이 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對策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이쪽에서 남은 돈은 그냥 남아서 이렇게 處理되고, 또 다른 分野에서 돈

을 자꾸 달라, 물론 合法性 있게 타가야 될 部分도 많습시다.
그런 部分은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런 分野 속에서도 융통성 있는 對策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
도 있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알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林鍾化 委員 質疑하세요.

○林鍾化 委員; 市立大 關係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市立大는 經商大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事務局長 閔庚台; 經商大學 있습니다.

○林鍾化 委員; 그렇다면 제가 이 資料를 보니까 水道라든지
또는 電氣라든지 그래서 水道光熱費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借入金 利子라 하면 借入金이 있어야 되고 또 支給利子 이런
명목의, 雜收入 같으면 무슨 고물을 팔았다든지 그래서 볼 때
資料를 제가 分析을 해 보니까 너무 그런 면에서 未備하고,
또 여기 關係하신 事務局長이라든지 總長님은 모르지만 거기
庶務課長이라든지 있어서 收入이라든지 支出面에서 精確명료
하게 써야 되는데 여기 分析을 보니까 借入金 利子が 3,900
萬원이 설정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銀行에서 30億원 이
상을 借入을 하려는 計算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借入金 利子에 보니까 3,597萬 5,000원을 豫算에 넣어 봤는
데 借入金이 없죠, 현재는?

○事務局長 閔庚台; 네, 현재는 없습니다.

○林鍾化 委員; 그런데 不用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精確히, 여기 보니까 雜收入에서 보면 고물을 팔았다
든지 각종 명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전혀 우리가 봤을 때 資

자료 보서는 우리가 分析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서, 물론 다른 部署에 계시다가 2個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과약이 안 되고, 또 歲入·歲出에 대해서 하지만 밑에 분들에게 앞으로는 資料를 조금 정확히 해서 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梁東錡 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梁東錡 委員; 梁東錡 委員입니다.

지난번에 文化教育委員會 委員들이 市立大學校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實驗室 등 여러 곳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研究室이라든가 實驗室 등을 봤을 때 정말로 이 學校가 서울 市立大學校나 할 정도로 저희들이 異口同聲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豫算節減을 해서 不用額이 17億 5,600萬 원, 또 豫算 殘額이 57億 6,000萬 원 등 이렇게 無計劃적으로, 計劃이 하나도 없는 執行을 하고 基準을 세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市立大學校側에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文化教育委員으로서 어떻게 저희들이 來年度 96年度 豫算編成 할 적에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同僚委員들도 指摘을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委員 들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市立大學校는 總長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教授님들이 계시고, 또 그렇게 참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애쓰고 있는 市立大學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來년에는 研究費라든가 모든 것을 잘 좀 해서 하자고 하는 이런 것을 스스로 우리 委員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決算報告를 하는데 準備도 없이 이것 한 장을 檢討하고 안 나오셨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文化教育 委員 자체를 너무도 경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되고요, 앞으로 지금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자못 資料를 要求했습니다. 빈틈없이 해서

96年度 저희들이 豫算編成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 市立大學校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적은 資料, 아까 우리 趙相勳 委員도 指摘을 했습니다만 다른 데 決算報告書를 보면 정말 훌륭하게 잘해 왔습니다, 細目 細目. 이렇게 어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말이죠, 이제 와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꼴을 정말로 안 보여주셔야 저희들이 市立大學校만큼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林靜枝 委員 質疑하세요

○林靜枝 委員; 林靜枝 委員입니다.

저도 앞에 委員님께서 다 말씀드렸습시다만 補充質疑에 불과한데요, 여기 施設管理가 양쪽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施設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번 市政質疑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漢江물 水質檢査를 하는 實驗室이 마치 30年前 高等學校 化學室만도 못한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不用額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지 疑問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事務局長 開庚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施設費는 새로 新築, 增築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豫算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主要事業費 施設附帶費는 補修費, 주로 維持管理가 되겠습니다.

○林靜枝 委員; 그러면 化學實驗室이라든가 研究室 이런 것에 대한 豫算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그것은 實習機資材는 資產取得費로 들어갔습니다.

○林靜枝 委員;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여기 項目이?

○事務局長 閔庚奘; 그것은 機關運營費에 資産取得費가 있고, 學事管理에 資産取得費가 있습니다. 機資材는 그 部分에서 購入하고.....

○林靜枝 委員; 자세히 項目을 넣어 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래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특히 實驗室 같은 데는 대폭 豫算을 세우고 支援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徐在浣 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徐在浣 委員; 徐在浣 委員입니다.

事務局長이 8월에 赴任했다고 그랬죠?

○事務局長 閔庚奘; 네.

○徐在浣 委員; 그 전의 事務局長은 몇 年 계셨는지 알고 싶어요. 몇 年 동안 勤務를 했는지.

○事務局長 閔庚奘; 10個月 정도 勤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在浣 委員; 10個月이요? 또 그 前年度, 前任者는? 한 1年 未滿이죠?

○事務局長 閔庚奘; 대개 그랬었습니다.

○徐在浣 委員; 市立大學校의 事務局長은 지나가는, 거쳐가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昨年度 제가 速記錄을 보았습니다. 昨年度도 오늘과 똑같은 狀況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資料不實이라고 하는 이런 질책을 昨年 同僚委員들께서도 무수하게 質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今年度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계속되는데, 그 結果는 곧 事務局長, 앞에 이야기

했듯이 10個月 내지 1年을 못 견디고 지나가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그 이하 關係公務員들의 勤務態도와 또 이런 자세가 전연 每年 달라지지 않고 오늘과 같은, 또 反復되는 指摘事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들은 반드시 是正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警告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李英順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順 委員; 李英順 委員입니다.

機關運營費하고 學事管理, 이 두 項目에 있어서 特殊活動費, 業務推進費가 二重的으로 豫算에 編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二重的으로 똑같은 內譯이 編成이 되어야 하는 理由가 무엇입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이 部署別로 다릅니다. 그냥 機關運營 하면 事務企劃室 이 部分이 되겠고요, 學事管理는 敎務處, 그래서 그 分野가 二重編成이 아니고 分野가 다른 部分으로 編成이 된 것입니다. 部署別로 編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李英順 委員; 그러면 特殊活動費와 業務推進費의 차이가 어떤 것이며,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세미나를 開催한다든가, 그 다음에 用役發注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에 쓰는 部分이 되겠습니다.

○李英順 委員; 지금 機關運營費에 編成되어 있는 이 두 內譯과 그리고 學校의 質을 높이기 위해서 투여할 資產取得費나 物品購入費, 이 內譯의 比重을 따져본다면 오히려 學校의 質을 발전시켜 內容에 置重보다도 이렇게 外形的인 事業에 더 置重하고 있지 않은가, 學校의 關心事가 內容 있는 質을 높여 나가는 그런 데보다도 外形的인 활동에 더 置重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事務局長 閔庚台; 이 學校에는 大學校의 特性이 있기 때문에 教授분들에 대한 研究活動支援이라는 차원에서 人件費의 성격이 많이 比重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用役費라든가 그 다음에 研究補助費라든가 이런 등등이 業務推進費나 特殊活動費의 豫算에 編成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 施設投資나 機資材 등 資産取得費에도 豫算이 投入이 많이 되겠지만 學校라는 그 特性에 따라서 人件費의 성격에 따른 研究活動 支援費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李英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 李載震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雲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金大統領이 就任하면서 豫算節減次元에서 10%를 義務적으로 아마 豫算節減을 하도록 그렇게 指示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로 豫算節減을 하도록 그렇게 指示가 되어 있습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그런 範圍 內에서 節減…….

○李載雲 委員; 5% 範圍 內에서, 그래서 사실 첫 회에는 억지춘향이식으로 豫算節減할 수 없는 豫算을 억지로 10%를 節減해서 했지만, 결론적으로 계속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더 豫算을 증가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기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괜히 公職者들만 괴롭히는 이런 現實 속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특별히 市立大學校에서는 이제 運營費나 또는 모든 特殊活動 하나 하나를 實質적으로 不用額을 되도록 적게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現在까지 서울市에서 市立大學에 큰 財政을 補助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계기가 있을

때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不用을 남기지 않는 豫算을 처리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同僚委員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誠意 있는 그러한 모든 面에서, 이번뿐이 아닙니다, 다음부터라도 조금 더 誠意있게 해야 우리 委員들이 보는 面이 더 서지 않겠느냐, 事實上 大學이니까 特殊性에 비추어서 웬만하면 넘어가는 그러한 습관보다는 좀더 誠意를 보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一般運營費가 學事管理나 機關運營에 있어서 다같이 있는데 여기에 不用이 가장 많은데 이 내역도, 아까 우리 劉大運 委員께서 말씀하신 데 개괄적으로 해서 같이 좀 添附해가지고 書面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金亨根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亨根 委員; 金亨根 委員입니다.

여러 同僚委員들께서 거의 모든 質問을 다 한 것 같습니다. 本委員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質問하겠습니다.

入試論文審査 細項에서 一般運營費에 事業變更取消로 한 반 정도가 不用이 됐는데요, 具體적으로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閔庚台; 이것은 아까 提案說明 때 報告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入試가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教育部方針이 變更되어서 95年 1월이 되는 바람에 94年度 豫算이 50%밖에 執行이 못하고, 그래서 불가피 不用額이 發生한 것입니다.

○金亨根 委員; 例년에는 1월이었습니까? 今年에만.....

○事務局長 閔庚台; 今年에만 이것 變更이 別안간에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金亨根 委員; 그러니까 例年에 12月달이었었는데 今年에.....

○事務局長 閔庚台; 例年에는 즉 12월에 入試가 됐었습니다.

○金亨根 委員; 細項을 보면 入試 및 論文審査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細細項에 보면 入試管理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論文審査에 따른 業務推進費를 바로 入試管理費用에서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여기에서 받는데, 事實입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네, 같은 것입니다. 細項에 入試 및 論文審査가 되어 있고, 細細項 分離가 入試管理인데, 入試管理에 역시 入試 및 論文審査의 돈도 여기서 全部 執行이 된 것입니다.

○金亨根 委員; 入試管理하고 論文審査하고는 별도인데 業務推進費에서 그 費用을 뺀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學事管理에서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細項, 細細項 구분을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豫算編成이 거기를 編成이 되어서 執行이.....

○金亨根 委員; 앞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入試에 따른 歲入이 전혀 여기에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入試生들한테 入試費用을 받죠? 收入證紙라든지. 그 費用이 얼마나 됩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이 주장 앞에 보시면 歲入의 部分이 全部가 入試에 대한 授業料와 全額이 그것입니다.

○金亨根 委員; 아니오, 授業料가 별도이고 入試管理가 별도이지 않습니까? 入試管理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事務局長 閔庚台; 授業料 收入이.....

○金亨根 委員; 아니, 授業料 收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 入試管理에 따른 收入이 얼마이고, 支出이 얼마나 그 %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事務局長 閔庚台; 授業料하고 入試에 대한 그것 같이 포함되어서 80億원인데요, 그 部分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金亨根 委員; 제 얘기는요, 學校를 管理하는데 있어서 물론 市立大學校이기 때문에 私立大學하고는 다르게 授業料에 依存하지 않고 市에서 補助하는 費用을 대부분의 費用으로 運營하고 있습니다. 入試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인데, 요는 學校運營의 보다 效率的인, 그리고 經營的 次元에서 運營을 하려면 入試費用이 얼마인지, 그리고 入試에 따른 收入이 얼마인지, 그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 收入과 支出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意味에서는 入試 및 論文審査 細項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論文審査는 在學生들이 卒業할 때 하는 論文審査고, 入試는 學生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試驗에 들어가는 費用입니다. 그러니까 入試費用을 따로 算定을 해서 그 費用과 收入費用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게 運營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入試 및 論文審査라는 細項을 만들어 놓은 것은 조금 그런 意味에서는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요, 더더구나 거기에 細細項이 나뉘어 있지 않고 같은 目에 一般運營費, 業務推進費로 해놓고 入試에도 거기에서 쓰고, 論文審査할 때도 거기에서 쓰고, 그러는 것은 조금 論理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質問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事務局長 閔庚台; 豫算書가 지금 여기에 없어서 그러는데 豫算書에는 다 區分이 되어 있습니다. 집계만 되어 있기 때문에 豫算書의 內譯을 잘 보시면 나와 있는데 상세한 資料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그 區分이 안되어 있는 것뿐이지 內譯은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金亨根 委員;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적어도 經營的 차원에서 제대로 管理가 되려면 入試費用은 얼마인데 거기에 따른 收入은 얼마였다.....

○事務局長 閔庚台; 이것은 敎務處 所管이 되어서 敎務課長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亨根 委員; 그것 答辯할 수 있으면 지금 하고요, 근본적인 問題는 細項하고 細細項目을 나누는데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指摘하는 것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敎務課長.....

○敎務課長 吳世朱; 敎務課長이 간략하게 報告드리겠습니다.

入試管理費는 事業場 收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昨年度 같은 경우에는 입시전형료하고 원서대하고 그것만 收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昨年 같은 경우에는 2億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94年度에는 아까 事務局長이 報告드린 대로 12月 施行 豫定이던 本考査가 1月 13로 決定이 되는 바람에 94會計年度 豫算을 支出을 못해서 거기 不用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總昨年 같은 경우에는 入試에 所要되는 豫算이 약 1億 5,000萬원 정도 所要가 되었습니다. 本考査 結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金亨根 委員; 여기 資料를 보면 1億 5,000萬원이 아니고 豫算 9,200萬원 中에서 4,900萬원 쓴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敎務課長 吳世朱; 그것이 전체 金額 中에서 5,000萬원만 支出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本考査가 實施된 예측이 今年度 그것을 감안해 볼 때 그 정도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豫상이

됩니다.

○金亨根 委員; 저는 다른 것을指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歲入·歲出에 대한 費用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그것은 잠깐 봐서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적어도 入試에 대해서만은 명확하게 歲入은 얼마 있었고 거기에 따른 歲出은 얼마였었다, 그래서 入試만큼은 예를 들어 經營的 측면에서 봤을 때 赤字가 났다든지 黒字가 났다든지 그것을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資料가 아무데도 없었고, 또 한 가지는 入試 및 論文審査라는 細項의 目을 살펴 보면 一般運營費와 業務推進費를 합해 났기 때문에 入試와 論文審査는 엄연히 서로 다른 業務인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目까지 같이 묶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細目에 가서야 알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指摘하는 것입니다.

○事務局長 閔庚台; 알겠습니다. 入試管理 部分에 대한 收入, 收入證紙가 되겠죠.

그 部分만 管理費를 뽑기는 무척 어렵지만, 教授들의 俸給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部分 나름대로만 收入과 支出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檢討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入試에 따른 歲入이 授業料 등 기성회비 합쳐서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支出에 비해서. 그래서 80%는 결국 市에서 一般會計에서 支援을 받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入試 및 論文審査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 敎務處 確認을 해 보니까 저희 論文審査에 대한 豫算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論文審査는 빠지고 入試管理만 支出이 되었기 때문에, 細項에는 入試 및 論文審査가 있었는데 細細項에는 論文審査에 대한 豫算支出이 없기 때문에 入試管理만 여기

표시된 것으로 그렇게 理解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梁東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東錡 委員; 梁東錡 委員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특수대학원에 新入生이 登錄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講義를 듣지 않고 참여를 안해버렸을 때 登錄金은 雜收入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다음 期에 다시 참여토록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事務局長 閔庚台; 歲入은 登錄을 하고 授業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歲入措置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하기는 어렵고, 이런 상태입니다.

○梁東錡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登錄을 해 놓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안한 新入生에게 이리이러했다는 事由를 通報를 해 줍니까?

○事務局長 閔庚台; 그것은 入試管理上 登錄을 한 분이 休學은 할 수 있어도 그 學期에 듣지 않은 분들의 세입을 반납하거나 하면 學事管理가 안 되기 때문에.....

○梁東錡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返納이든 어떻든 간에 本人에게 學校側으로부터 이리이러한 規定에 의해서 學校側으로 返納이 된다, 아니면 어떤 學校規則에 의해서 個人에게 通報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實質적으로 알고 있는 事項이 있어서 質問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學校側에서 本人이 몰라서 내가 學校를 안 다녀도 다음 기회에 가면 혹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本人에게 通報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事務局長 閔庚台;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李善宰 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善宰 委員; 李善宰 委員입니다.

아까 李載震 委員께서 質問하셨던 豫算節減指針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이 豫算節減指針 때문에 支出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요? 이것을 다 썼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10% 節減하는데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쓰고 싶지만 이번에 넘어가자 이래서 豫算을 執行 못한 事例가 있는가, 또 하나는 지금 豫算編成指針案을 내려보내서 5%를 해라, 10%를 節減해라 그러는데 쓰라고 해놓고 그 다음 또 쓰지 말라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指針이 앞으로도 계속 有效하다고 보는지, 이것은 필요없는 일인데 이렇게 자꾸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그러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總長님께서 인사말씀하는 가운데 서울시立大學에 運營委員會가 새로 構成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運營委員 構成한 名單을 하나 쏠 委員에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事務局長 閔庚台; 豫算節減指針 때문에 執行에 어려움을 그렇게 느낀 것은 없습니다. 지금 委員님들께서 보시겠지만 節約은 소모성이라든가 가급적 不要不急 한 豫算을, 浪費性 豫算을 執行을 制限하라는 차원에서 指針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法規上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애로는 없었고요, 그 指針 이외에도 더 보시겠지만 저희가 不用額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고, 그후는 지금 현재 %를 정해서 指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94年 이후는. 95年度부터는 이것은 안 나오고 節減하는 일반적인 指針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래서 豫算執行過程에서 거기에 拘束되거나 그로 인해서 執行에 애로는 느끼지는 않습니다.

○李善宰 委員; 그렇다고 하면 豫算을 즉 執行하다 보면 이것이 이만큼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일거리를 찾아가 지고라도 그 쓰라고 준 것은 다 쓰도록 노력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指針 때문에 不用額이 나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안 될 것입니다. 아까 林委員 말씀하셨지만 또 豫算을 그냥 넘기면 못 쓰게 되니까 쓰지 않을 데에도 막 써버리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이제 즉 月別로 執行內譯을 이렇게 가다 보면 야, 이 돈이 이만큼 남겠다 그랬다면 새로운 뭘 찾아서라도 그것을 다 써주는 방향으로 해야 學校도 發展을 하지 준 돈도 못 쓰고 그 다음에 또 豫算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問題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參考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市立大學校 總長,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여러분의 答辯準備 자세와 答辯 태도에 대해서 우리 委員會 所屬 委員 모두가 수일 전부터 많은 論難이 있었습니다. 所屬委員들의 指摘은 報告書의 지질이나 편철방법을 指摘하는 것은 아닙니다. 決算書와 提案說明書 모두를 읽어봐도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좀더 深度 있는 檢討를 위해 내일 계속해서 審査를 해야 되겠다라는 主張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市立大 總長께서 직접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성실하고 성의 있는 答辯準備를 하겠노라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長 金鎮炫; 總長으로서 대단히 착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로 市立大學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立大學이 거듭나고 진실로 市民의 大學, 서울 市 社會共同體大學이 되도록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저로서는 맹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 委員님들께서 채찍질하시고, 指摘하시고, 심지어 안타깝다고까지 말씀하신 그러한 심정에 뭐라고 答辯을 드려야 될지 대단히 송구스럽기 한량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總長으로 있는 한은 반드시 여러 委員님들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누적된 여러 가지 모순과 어려움을 改善하는데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委員님들 앞에 못난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기 한량없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市立大學校의 입장에서는 그 나름으로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前任 總長의 말씀을 들으면 在任 4年 동안에 事務局長이 일곱 분이 바뀌었다고 그러합니다. 저도 지금 불과 6個月밖에 안 됐습니다만 두 분의 事務局長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 事務局長도 本人의 탓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또 그 밑의 職員들은 職員들대로의 여러 가지 專門化 내지는 特性化 되기 전에 전부 大學 運營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움직여지지 않고 다른 서울市的 人事 전체의 原則에 의해서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大學은 솔직한 말씀으로 中心이 없는 大學입니다. 主人이 없는 大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그

래서 솔직하게 우리 敎授님들이 中心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의미에서 敎授님들은 자유분방하신 것이고, 그래서 管理라는 측면, 經營이라는 측면, 더욱 들어가서 오늘과 같이 會計나 豫算 들어가면 대단히 뻥뻥 뚫어진 구멍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것을 고치는데 여러 委員님들께서 오늘과 같은 애정어린 채찍질을 계속해 주시면 저희도 사람들에 반드시 고쳐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總長으로서 무한 責任感을 지닌 저로서는 뭐라고 시원한 答辯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委員님들께서 要求하신 資料라도 제가 직접 챙겨서 여러 委員들께서 要求하신 時日 內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그러면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市立大學校所管 1994會計年度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市立大學校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는 退場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55分 會議中止)

(11時 56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順德;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公務員教育院 關係公務員 着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2. 公務員教育院所管1994會計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委員長 安順德; 議事日程 第2項 公務員教育院所管 1994會計年度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먼저 公務員教育院 院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입니다.

94年 우리 市 豫算決算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安順德 文化教育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의 勞苦에 感謝와 敬意를 표하며, 지금부터 94年度 公務員教育院의 歲入·歲出 決算에 대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

(報告)

公務員教育院所管1994會計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 提案說明

(뒤에 실음)

.....

이상으로 公務員教育院의 94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指導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順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尹炳國; 專門委員 尹炳國입니다.

公務員教育院所管 94會計年度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部分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公務員教育院所管94會計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 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

(뒤에 실음)

.....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 應答을 하시겠는데요, 時間의 效率性을 기하기 위해서 重複을 좀 피하시고, 또 특히 자세한 事項을 質疑하실 것은 書面質疑를 要請하시고, 時間을 節約하여 주시는 意味에서 간단하게 質疑를 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먼저 質疑하실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鄭韓植 委員 말씀하십시오.

○鄭韓植 委員; 鄭韓植 委員입니다.

一般職 公採試驗 應試人員이 減少되어서 3,719萬원이 不用處理되었습니다. 그렇다면 當初 應試人員 豫想者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一般職 公開採用 應試者 當初 人員을 5萬名을 豫想을 했는데 실제 그해 2萬 1,000名이 接受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不用額이 發生했습니다.

○鄭韓植 委員; 그렇다면 그렇게 計劃과 實績이 차질이 많이 나는 이유는 뭐죠?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93年度까지는 一般景氣不況으로 많은 應試者가 있었는데 우리 經濟가 이제 94年 이후 차츰 풀릴 단계에 오니까 상당히 人員數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推測이 됩니다.

○鄭韓植 委員; 그에 따른 豫算은 얼마였습니까? 當初에.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公債는 5,000萬원이 豫算이 되어 있었습니다.

○鄭韓植 委員; 5,000萬원 豫算이 計上돼 있었고, 그럼 執行은 約 1,300萬원?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네.

○鄭韓植 委員; 5,000萬원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 執行은 約 1,300萬원 됐습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그것은 추상적으로 우리가 人員減少라고 그랬는데요, 項目別로 따지면 반드시 그것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5,000萬원이 豫想됐습시다마는 그 해 마침 手數料가 올랐습니다. 또 그 실제 接受된 額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應試人員 減少로 인한 것은 全體的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좀 다르겠습니다.

○鄭韓植 委員; 아니, 그럼 아까 5萬名 豫想을 했는데 2萬 1,000名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그것은 應試人員數입니다.

○鄭韓植 委員;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人員數는 맞습니다.

人員數는 맞는데 꼭 그것이 比例的으로 額數하고는 반드시

一致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手數料가 引上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鄭韓植 委員; 當初 그러면 豫算은 計上이 5,000萬원이 됐었다는 말입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이것은 이렇게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試驗人員 減少로 인한 豫算節減은 반드시 人員 對 接受人員 만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試驗人員에 비하면 出題, 監督, 編輯, 問題選定 이와 같은 여러 가지 經費가 들기 때문에 이것을 總體的으로 人員減少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지 단순 그 算術平面的으로 1人 對 1人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이 分野에 대해서 委員님께 더 세밀한 質問이 계시면 저희들이 詳細하게 나중에 書面으로 答辯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鄭韓植 委員; 다음에 補償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質疑하겠습니다.

補償金도 定員에 대해서 計上을 하기 때문에 늘 不用額이 항상 남니까, 이렇게?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補償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退職手當, 醫療保險手當, 副業斡旋, 年金負擔額 이런 등의 補償金이 있습니다.

○鄭韓植 委員; 그것 있는지는 저도 압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每年 나왔느냐 이말이죠.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每年 이렇게는 안납니다만 94年度에는 豫測이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鄭韓植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음 委員님 質疑하여 주십시오. 劉大運 委

員님 質疑하십시오.

○劉大運 委員; 劉大運 委員입니다.

豫算에서 말해 주듯이 公務員敎育院은 경직성 經費의 豫算이 대부분이고 事業部署가 아니기 때문에 豫算에 대해서는 資料도 너무 잘해 오셔서 質問을 안해도 資料上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고 그래서 豫算에 대해서는 質問을 좀 省略을 하겠고, 敎育院 運營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이라는 그 目的이 말이죠, 公務員의 質 向上에 目的이 있죠?

○公務員敎育院長 孫長鎬; 그렇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런데 公務員敎育院을 다녀와서도 敎育 前보다 差別性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이 혹여 公務員敎育院의 敎授나 院長들에 대한 研究費가 없어서 어떤 향상을 目的으로 하는 敎育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憂慮마저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公務員敎育院長 孫長鎬; 委員님, 여러 가지 敎育院에 대해서 보살피 주신 뜻은 매우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敎育院 다녀와서 크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公務員도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려운 서울 市 豫算 下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研究費 範圍 內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委員님 말씀하신 그와 같은 公務員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公務員敎育院에 宿舍敎育을 시켜서 스파르타식 혹은 새마을식 敎育을 시킨 그런 좀 따끔한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敎育院이 상당히 자발적이요, 또 스스로 하는 이런 과정으로 바뀌다 보니 전과 조금 다른 감을 느끼는 公務員이 있을 수가 있

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보다도 다만 우리는 職務 專門教育課程을 많이 新設해서 주로 職務分野에 해당 우리 서울시 幹部를 많이 차출을 해서 職務 專門教育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來年度에도 더욱 이 分野의 職務에 숙달할 수 있는 그런 教育을 할 작정입니다. 이제까지 教育이 미진했다면 저희 教育院 職員 一同은 心機一轉해서 앞으로 우리 公務員들로 하여금 그 職務分野에 더 정통할 수 있는, 또 地方化時代에 더 걸맞는 그런 教育을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지금 答辯하시는 분이 院長님이세요?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네, 그렇습니다.

○劉大運 委員; 지금 赴任한 지 얼마 안 되셨죠?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한 2個月 되었습니다.

○劉大運 委員; 혹시 赴任하시고 난 후에 역대 公務員教育院의 教育方向에 대해서 研究나 計劃된 그 內容이 있으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지금 저희들 教育은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그런 教育이 아니냐 이렇게 評價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來년에는 좀더 우리가 창의적이고 地方化時代에 걸맞는 그런 教育을 시키도록 우리 幹部들끼리 많이 論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은 年末이 안 되어서 확정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計劃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教育課程에서 注入式, 講義式 教育보다는 우리 教育院 차출 院生들이, 被教育生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식으로 하는 그런 教育을 來년에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몇 개 관에서 示範教育을 해 봤습니다. 시범 테스트를 해 보니까 우리 公務員들이 많은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또 來년에는 정

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식 敎育을 하는 方向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잠정적인 結論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敎育院이 우리 公務員이 약 140名 정도가 있고 技能職을 빼고 나면 한 6·70名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구태의연한 그런 敎育을 시키고, 선생님 모셔와서 敎育을 시키는 方法에서 좀더 진일보해서 이제 우리 幹部가 1個 敎育課程을 맡아서 처음부터 책임지는 소위 課程長 制度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課程長 制度는 우리 敎育院 職員들이 그냥 선생님을 招聘해서 講義케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어느 係長, 事務官 한 사람이 어느 課程을 처음부터 맡아서 그 課程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計劃하고, 모셔오고, 評價하고 나중에 다시 效果도 測定할 수 있는 그런 총괄적인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制度를 實施해 보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아마 앞으로 더욱더 發展을 해서 研究를 하고 檢討하겠습니다만 이런 크게 우리가 來年에 心機一轉해서 變革을 시켜보자 하는 것이 이상 說明드린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提議를 하겠습니다.

지금 地方化時代에 걸맞는 敎育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答辯 內容에 대한 代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地方自治團體長이라 함은 廣域團體와 基礎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公務員敎育院은 廣域團體나 地方自治團體 公務員들이 모두 수용해서 敎育을 할 수 있는 그런 制度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상당수 高位公職者가 委員會 또는 本會議에서 答辯할 수 있는 그런 權限이 있고, 基礎 같은 경우에는 事務官級 이상이

答辯할 수 있는 權限이 있는데 지금 下位職 公職者들은 말이죠, 地方化時代에 따른 대비책 부족으로 인해서 손발이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局·課長이 議會에 答辯을 하러 나가면 거기에 대한 모든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局·課長하고 손발이 안 맞는 實務에서 비틀 때도 있습니다. 이것 골탕형이라고 그러니까, 골탕형. 자기 上司를 골탕먹이기 위해서. 이런 部分에 대한 教育이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議會圈에서 벗어나는, 다시 말하면 發言圈에서 벗어나는 그런 公職者는 議會를 알기를 정말 경시풍조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알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래서 이런 部分의 教育이 新設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招聘教授로 하여금 教育을 시키는 것보다는 산 역사의 實務型으로서, 자기 先輩로서 자기 실담과 職務形態에 대한 모든 것을 注入시켜 주는 그런 집중식 教育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앞으로 우리는 미래를 서울시 公務員에게 걸어서 他市·道의 公務員들도 서울시 公務員의 본을 따서 맑고 투명하고 우리 國民이, 市民이 믿을 수 있는 그런 代案을 가지고 教育制度改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劉大運 委員님 提案과 충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下位職의 上司에 대한 補助가 미진하다, 또 委員들에 대한 대우가 신통치 않다 하는 것 저희들도 솔직히 是認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委員님들 뿐만 아니라 下位職員의 無責任性으로 인한 對外機關 全般에 대한, 또 民願人에 대한 그런 성실성, 또 이런것이 부족하다

는 점을 솔직히 是認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問題는 우리가 職務教育課程이나 다른 教育課程 모든 분야에 課程을 넣어서 公務員의 봉사자세에 대한 그런 철저한 사명감을 심기 위한 教育課程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또 招聘教授보다는 實務型, 소위 先輩 公務員이 좋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來年에 職務教育課程을 통해서 우리 實務 先輩公務員으로 하여금 산 그러한 경험을 가르치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겠고, 또 아울러서 地方化時代에 基礎議員이나 우리 市議員님들도 講師로 招聘하는 그런 方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順德; 徐在浣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浣 委員; 徐在浣입니다.

公務員教育院답게 資料를 잘해 줘서 우리가 보기가 좋습니다. 指導教授와 專任講師, 다음에 時間講師, 招請講師가 몇 명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答辯할 수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우리가 일단 專任教授 혹은 專任講師라 하는 그 사람들은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는, 쉽게 말하면 教授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9명이 있습니다. 9명 가운데 4명은 正規職 公務員입니다. 事務官級에 해당하는 正規職 公務員이고, 5명은 契約職 公務員입니다. 5명은 그 分野에 소양이 있는 契約職 公務員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科目別로 한 個 科目當 약 세 사람 정도, 이 사람들을 우리가 選拔하는데 이분은 우리가 教授選拔審査委員會를 構成합니다.

여기에 教授部長이 나왔습니다만 教授部長이 委員長이 되고, 우리 幹部 교관이 委員이 되는 教授選拔審査委員會에서 과거

에 우리 敎育院 혹은 다른 敎育院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그중에서도 우리가 敎育生을 敎育하고 나면 반드시 評價를 합니다. 敎育生들의 이 선생님에 대한 評價가 어떠냐, 유익하다고 봤느냐, 講義를 잘하느냐 이런 評價를 하는데 이런 評價에 좋다는 판정을 받은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選拔하고 있습니다.

○徐在浣 委員; 간단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指導敎授, 專任 講師, 또 時間講師, 招請講師는 1년에 몇 분이나 있는지?

○公務員敎育院長 孫長鎬; 外來講師가 94年度 314분이었습니다. 大學敎授가 93名이고, 中央部處 幹部들이 51名이고, 다른 研修機關의 사람이 152名 이렇게 해서 약 314명이 위촉이 되어서 講義를 하고 간 그런 經歷이 있고요, 서울市 職員은 194명이 서울市 公務員이 여기에서 講義를 한 經歷이 있습니다.

○徐在浣 委員; 왜 이 이야기를 본委員이 묻느냐 하면 不用額中에서요, 講師手當 執行殘額이 3,327萬 7,000원이 나왔어요. 1年 보면 매달 한 1,000萬원꼴 거의 되는데 이 講師手當이 이렇게 不用額으로 남아돌아간다고 할 때 講師 招聘하는데 실질적으로 낮은 講師를 招聘해서 敎育에 어떤 問題點은 없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質問을 했고요, 앞으로는 좀더 이런 部分에 대해서는 좋은 강사분들을 招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豫算도 좀 확실하게 해서 예우도 좀 해야 더 質的인 敎育이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質問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孫長鎬; 네, 고맙습니다.

○徐在浣 委員; 앞으로 參考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李善宰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宰 委員; 李善宰 委員입니다.

決算說明 資料 1페이지에 보면 公務員 採用試驗 처음에 計劃人員이 6萬 1,000名입니까? 이랬었는데 2,500名밖에 應試를 안했다, 그런데 手數料 引上을 보니까 1,000원에서 7,000원, 1,000원에서 5,000원 그러면 무려 500% 내지 700% 引上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또 이렇게 대폭적으로 引上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試驗을 보고 하는 費用이 다 충족이 되는 것인가, 아니어서 앞으로 또 引上을 해야 할 형편에 있는 것인가, 그런데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委託教育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委託教育費를 引上하셨다고 그랬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引上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委託教育費 속에 식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먼저 採用試驗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採用試驗 手數料는 6·7級이 1,000원에서 7,000원, 8·9級이 1,000원에서 5,000원이 올랐는데 사실 이 金額은 한 10年間 동결되었다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화시키니까 아마 試驗手數料는 거의 現實化, 일단은 일응 된 것입니다. 일응 되어서 별 問題가 앞으로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委託教育費는 식비도 포함이 됩니다. 合宿教育은 더구나 식비가 포함되는데요, 여러 가지 課程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3週 合宿教育하는 것은 25萬 7,000원에서 28萬 9,000원으로 이렇게 引上이 되었습니다. 基準으로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면 3週 合宿教育하는 委託教育生 25萬 7,000원

받던 것을 28萬 9,000원으로 3萬 2,000원이 상승했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李載震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적은 金額입니다만 敎學管理에 賃借料問題에 있어서 不用額이 支出額보다 훨씬 많은 金額인데 여기에 보면 現場學習 등 車輛賃貸, 자체 車輛을 活用함으로 인해서 節減이 되어 가지고 不用額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豫算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지금 公務員敎育院에 車輛이 몇 臺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係長鎬; 3臺.

○李載震 委員; 버스죠? 그리고 이제 事實上 여기 市廳에 있는 車輛도 꼭 필요로 할 때는 公務員敎育院에서 賃貸料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方法으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賃貸料같은 데에, 물론 다른 데에서 필요해서 쓸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많은 不用을 남기는 것이 問題가 아니라 또 쓰는 額數도 상당히 줄여서 앞으로는 이 賃借料欄을 아주 적은 金額으로 編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施設費에 보면 23.7%에 該當하는 9,493萬 4,000원을 不用을 했는데, 이것은 좀 어떤 뜻에서 이렇게 23%나 不用이 됐습니까? 뭐 큰 不用은 아니지만, 제일 마지막 8페이지 敎學管理 施設費.

○公務員敎育院長 孫長鎬; 먼저 賃借料는 말씀이죠, 委員님 지적대로 앞으로 줄여서 編成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버스를 利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당초 計劃할 때는 여러 가지 計劃을 세우다가 中間에 이제 敎育課程이 變更되어 버리니까 編成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

것은 節約하는 方法으로 해서 豫算編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施設費는 落札差額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안한 것도 있지만 落札差額이 상당히 있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러시고 이제 防水나 修理에 있어서는 거의 다 됐습니까, 이제?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防水는 오래간만에 우리가 防水工事を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고쳤습니다.

○李戰雲 委員; 계속적으로 防水工事問題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 됐는가, 또 앞으로도 防水工事を 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委員님들 質疑가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豫算 全體에 대한 어떤 政策的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提示를 해 주시고, 細目別로 아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書面으로 質疑를 받으시고 時間을 節約해 주시는 意味에서, 또 午後 時間이 있기 때문에 어떠신지 저는 하여튼 意見을 듣고 싶습니다.

○劉大運 委員; 지금 公務員教育院이 거의 끝나 가거든요. 그래서 鄭韓植 委員께서 한 말씀하신다니까 주시고 바로 議決해서, 또 公務員教育院에서도 들어가셔서 行政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그러면 諒解를 해 주시고, 鄭韓植 委員님 簡略하게 한 말씀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韓植 委員; 鄭韓植 委員입니다.

本委員은 좀더 오랫동안 길게 質疑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委員長께서 간곡하게 부탁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質疑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公務員教育院 設立目的은 公務員 再教育

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公務員敎育院長께서도 아
까 答辯內容 中에서 그런 言及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孫長鎬; 네, 中心이 再敎育입니다.

○鄭韓植 委員; 그런데 94年度 豫算執行實績을 보면 45億
1,100萬원입니다. 그 中에서 庶務管理가 28億 5,100萬원으
로서 63%를 차지하고, 敎學管理가 16億 5,900萬원으
로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敎學管理 中에서 실제 公務
員 再敎育費가 얼마나 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孫長鎬; 글썄, 실제 再敎育費를 뽑아서 내
라면 상당히 지금 즉석에서 答辯드리기 상당히 힘듭니다만,
저희들 敎育課程의 大部分이 公務員 職務訓練課程입니다. 職
務訓練이라는 것은 거의 再敎育課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
습니다.

○鄭韓植 委員; 再敎育費가 公務員敎育院 運營總豫算의 執行
實績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公務員 再敎育에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管理費만 많이 들
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公務員敎育院 設立目的 趣旨에 어긋
나지 않느냐, 本委員의 느낌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孫長鎬; 그 點에 대해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庶務管理가 63%라는 것은 주로 人件費입니다. 人件費하고
施設維持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事業部署가 아니고 敎育
部署이기 때문에 주로 종사하는 公務員의 人件費가 大部分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施設을 維持管理하는 그런 費用이 많
이 들고 오히려 敎育에서 講義를 한다든가, 講師手當이라든가
이런 것은 全體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比重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講師手當부터, 또 소위 特級

講師라 하는 분이 時間當 5萬원입니다. 우리 大韓民國에서 제일 유명한 분을 모셔와도 時間當 5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自體 內에서 이렇게 하면 3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敎學管理가 중요한 것은 事實입니다만 드는 費用面을 계량적으로 표시한다면 우리 종사하는 人件費와 施設維持費가 더 많이 들겠습니다. 그렇게 理解해 주시면.....

○鄭韓植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실제 公務員敎育院 設立目的인 公務員 再敎育은 등한시되고 있다는 事實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孫長鎬; 아닙니다. 등한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公務員이 거기에서 俸給을 받고 從事한다는 自體가 豫算의 分類上은 庶務管理지만 그것도 敎育行爲의 一種입니다.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庶務管理分野에 많이 차지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再敎育을 등한시한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施設을 유지하고 從事하는 公務員이 俸給받는 것도 敎育을 위한 事案이죠, 그러나 豫算法則上 이것은 庶務管理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鄭韓植 委員; 좋습니다. 公務員 再敎育과 관련된 經費만 따로 뽑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孫長鎬; 글쎄, 분명히 이것을 구분하기에는 무척 힘들 것 같은데요.

○鄭韓植 委員; 힘든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孫長鎬;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書面으로 뽑아서 한번 提出하겠습니다.

○鄭韓植 委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金亨根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亨根 委員; 다른 委員님들께서 質問 다 하실 줄 알고 기

다리고 있었더니 시간이 없다는 것으로 質問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온 部分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公務員教育院의 歲出豫算에는 다른 部署에 비해서 상당한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專門委員의 檢討意見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豫測可能한 手當이나 一般運營費, 補償金 등 과다한 不用額이 發生했습니다. 특히 規約管理에 있어서는 全體적으로 不用額이 25% 이상 發生했습니다. 그 精確한 原因이 무엇인지를 院長께서는 精確히 파악해서 가지고 96年度 豫算에는 이런 要因들이 다 除去된 그런 알찬 豫算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豫算節減하고 執行殘額하고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院長의 경우에는.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일반적으로 不用額에 대해서는 우리가 豫算節減額이라는 것이 있고, 節減額이라는 것은 本廳에서 예를 들어서 燃料費는 한 8% 年間 줄여라, 될 수 있는 대로 좀더라도 견디고 8% 줄여라, 또 資料蒐集費도 일정한 比率로 줄여라 하는 우리가 그런 豫算을 아끼기 위한 節減額이고, 그 다음에 執行殘額은 예를 들어서 落札差額, 이런 것이 執行殘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려고 하다가 안 쓴 것, 事業計劃을 취소해 버렸다든가 이런 것이 소위 純粹不用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책을 받아야 마땅한 純粹不用額입니다. 그러시고 여러 가지 不用額 事由가 많았다는 것은 앞으로 提出할 때는, 來年度에는 우리가 誠心성의껏 해서 不用額이 10% 以下로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亨根 委員; 아까 市立大學校의 경우에도 여러 委員들께서 지적을 했어요, 豫算節減이라는 것이 참 애매하다, 여기에서

94年度 豫算節減을 할 수 있었으면 왜 애초에 그만큼의 豫算을 더 編成했었는지, 과연 예산절감 여기에 써 놓은 것이 豫算을 안 쓴 要因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質問들을 했습니다.

그보다 根本적으로는 豫算節減이 무엇이고, 執行殘額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이 部署마다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部署長마다 理解하는 폭이 다르고, 그래서 물론 이 問題는 어느 한 개 部署만 가지고, 公務員敎育院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 庶務管理의 業務推進費는 豫算節減은 없고 執行殘額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敎學管理의 業務推進費는 거의 全部가 豫算節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實地 內譯을 보면 本委員도 區分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具體적으로 豫算節減을 시키는 것이 어느 項目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공통적인 서로의 意見交換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물론, 豫算節減을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節減要因을 사전에 없애야 되겠습니다. 94年度の 어떤 過渡期的인 성격으로 豫算節減이 5% 내지 10%가 있었다고 그러면 96年度부터는 이런 項目들은 미리 없애 놓고 그리고 豫算編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孫長鎬; 原則으로는 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豫算編成을 하다보면 각 部署에서 욕심을 내가지고 조금씩 많이 編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本廳 豫算部署에서 아예 強制的으로 이 分野에서는 한 8% 줄여, 豫算 좀 아끼자, 이 分野에서는 한 30% 줄여, 좀 아끼자, 이렇게 強制的으로 要求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 惰性인데, 조금 우리가 넉넉하게 豫算執行해서 다소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人間の 本性이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안 아끼니까 本廳에서 강제로 줄여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는 委員님 말씀대로 100% 정확한 豫測下에서 정확한 執行이 나와야 옳겠죠.

○金亨根 委員; 그런데 앞으로 또 그럴 것 같습니까, 豫測하 시기에?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 맞추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亨根 委員;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企劃管理室에서 몇 % 줄이라는 그러한 지침이 또 나올 것 같습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글썬요, 아마도 몇 %를 많이 요구는 않겠지만 豫算節減 次元에서 이 分野에서는 얼마를 今年 度에 目標로 해서 줄이자 하는 그런 決議事項은 나올 것 같습니다.

○金亨根 委員; 一般運營費 中에서 예를 들어 官署當經費에서는 10% 줄여라,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 같아요, 慣行이.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慣行이 그런 科目들이 있습니다.

○金亨根 委員; 그러니까 今年에도 10% 줄여라 하는 것을 豫測을 해서 10%를 더 올리셨죠?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저희들이 구태여 예측을 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통상 昨年에 準해서 編成을 하다 보면 또 豫算이 公帑할 때 줄이자 하는 決議가 나올 수도 있죠.

○金亨根 委員; 이번에 豫決審議할 때에는 아예 미리 줄여 놓으시는.....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저희들이 實用豫算을 짜겠습니다.

○金亨根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林鍾化 委員 質疑해 주세요.

○林鍾化 委員; 林鍾化 委員입니다.

委員長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빨리 끝내달라고 하시는데 짚고 넘어갈 것은 약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豫算決算 歲入·歲出에 보면 52億원이 歲入이 되었는데 支出을 빼니까 7億 8,000萬원이 不用이 나왔는데 그 不用額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고, 여기에 보니까 執行殘額 해서 4億 6,500萬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不用額은 7億 8,000萬원인데 豫算殘額은 4億 6,500萬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利子收入에 보면 16萬 7,000원이 나와 있는데 그 4億 6,500萬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資金을 管理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公務員敎育院에서 管理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孫長鎬; 이런 것이 있습니다. 豫算執行은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해서 配定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分期別로 한 分期마다 쓸 수 있는 만큼 配定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 殘額의 돈이 남는 것은 本廳에서 그것을 定期預金한다든가, 短期 어떤 저축성 예금에, 資金 자체는 本廳에서 運用을 합니다. 저희들 豫算은 分期別로 받고 있습니다.

○林鍾化 委員; 그러면 다음 한 가지는 公務員敎育院은 公務員들의 質을 향상하고, 또 敎育을 해서 再生産한다는 次元에서 우리가 公務員敎育院의 敎官은 제가 알기로는 事務官 5級이 敎官으로 있고 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대개 보면 公務員敎育院은 거쳐가는 公務員들이 엘리트 公務員이 와서 과연 全公務員을 全人敎育을 시킨다는 次元에서 해야 되는 것 같

은데 거쳐가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일부 보면 公務員教育院을 거쳐가는 것은 公務員 쪽에서는 下位職이다, 예를 들면 좀 꺼려하는 職種이 아니냐 이래서 빨리 公務員教育院에서 탈피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公務員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앞으로 公務員教育院이 名實相符한 公務員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뭔가 엘리트 公務員을 추출해서 그 자리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만, 또 公務員 教育을 받는 被教育者들도 열심히 教育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次元에서 앞으로 조금 많은 改善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감사합니다.

간혹 지나가는 公務員이 있고 그런 見解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 報告드린 대로 저희들이 있는 우리 公務員은 課程長制度,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教育시키는데 중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公務員教育院所管 1994會計年度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오늘 연이어서 3日째죠, 우리가 決算報告를 받고 있는데 거의 不用額에 대한 그런 委員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96年度 豫算編成에 있어서 參考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豫算案이 提出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停會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50分 會議中止)

(14時 24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鄭韓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構 3打)

3. 世宗文化會館所管1994會計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委員長代理 鄭韓植; 議事日程 第3項 世宗文化會館所管 1994會計年度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世宗文化會館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盧俊燦; 世宗文化會館 事務局長 盧俊燦입니다.

業務形便上 지난 8月 1日부터 지금까지 市長室에 派遣勤務를 하고 있습니다. 館長의 公務 國外出張으로 世宗文化會館 館長의 職務를 代理하여야 하는 職位에 있음에도 本人의 불

찰로 지난 20日로 예정되었던 世宗文化會館 決算檢査 關聯 議事日程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努力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사실상 실제 職務에 종사하지 못하여 業務把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委員 여러분들께서 널리 理解하여 주시고, 이번에 한하여 主務課長으로 하여금 世宗文化會館의 94會計年度 決算案에 대한 提案說明과 質疑에 答辯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委員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事務局長 盧俊燦;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庶務課長이 報告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庶務課長 金光秀; 世宗文化會館 庶務課長 金光秀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을 비롯하여 여러 委員님들께 世宗文化會館의 1994會計年度 決算에 대한 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4年度 歲入·歲出 決算案報告를 드리겠습니다.

世宗文化會館의 94年度 豫算編成 目的은 文化藝術活動의 원활한 支援, 水準 높은 公演場施設의 維持管理, 市民의 文化藝術 需要副應에 두었습니다.

저희 全 職員은 지난 한 해 동안 委員님 여러분께서 議決해 주신 뜻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財政的 限界를 지키는 한편, 節約과 能率을 추구하는 市政方針에 따라 緊縮執行을 하여 豫算을 14.1% 節約 運營하였습니다.

부족한 點을 指導하여 주시면 이후 豫算執行에 적극 반영하

도록 하겠습니다.

1994年度 決算報告는 一般現況, 運營現況 및 決算의 순서로 報告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一般現況과 運營現況은 지난번 業務報告時 1次 報告드린 바 있고 오는 10月 26日 저희 世宗文化會館 視察時에 다시 報告드릴 예정 이오니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

(報告)

世宗文化會館所管1994會計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 提案說明

(뒤에 실음)

.....

끝으로 94年度 歲入 및 歲出豫算은 世宗文化會館 利用市民의 負擔을 최소화하면서 市財政의 安定化를 도모하고, 市議會 議決의 뜻을 충분히 구현하려고 최선의 努力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市民의 文化藝術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水準 높은 文化藝術의 殿堂으로서 機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經費를 支出하였사오나 決算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尹炳國; 專門委員 尹炳國입니다. 世宗文化會館所管 94會計年度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檢討報告書 3페이지 部分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會計年度 世宗文化會館所管 一般會計 歲入·歲出 決算概要를 말씀드리면, 歲入決算額은 豫算額 15億 1,200萬원에 收納額은 豫算額의 94.8%인 14億 3,400萬원이며, 歲出決算額은 豫算額 145億 4,200萬원에 支出原因行爲額은 豫算額의 84.8%인 124億 8,500萬원입니다.

部門別 意見으로는 먼저 歲入에 있어서 88年度 歲入이 10億 3,100萬원인데 비하여 94年度 歲入은 14億 3,400萬원으로 7個年에 걸쳐 39.1%의 伸張에 그쳤으며, 94年度 財政自立度도 實績基準으로 11.6%에 그쳐 저조한 實績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原因은 世宗文化會館의 主要機能이 文化藝術活動의 支援과 水準 높은 公演場施設의 維持管理를 위한 文化事業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나 文化藝術의 殿堂으로서 純粹藝術을 지향하되 大衆文化藝術과의 접목 등 적극적인 運營으로 收支改善에 능동적인 努力이 요구된다고 思料됩니다.

또 歲入豫算을 編成함에 있어서는 모든 歲入源을 포착하여 收入可能額을 全額 計上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雜收入을 計上치 않은 것은 신중한 豫算編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豫算의 계획적인 編成과 효율적인 執行의 基準이 되는 不用額 發生現況을 보면, 不用額은 豫算現額 對比 14.1%인 20億 5,600萬원이 발생하여 前年度 對比 0.9%가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높은 不用率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藝術團體 運營部門에 있어서는 演劇團의 未創團으로 豫算 4億 8,000萬원이 全額不用되었는바,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한 事業計劃 및 豫算運用이 요구된다는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事故移越된 2件的 事業도 모두 年度末에 支出原

因行爲가 이루어져 豫算이 適期에 執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意見을 말씀드릴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그러면 質疑 應答에 들어가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大運 委員; 劉大運 委員입니다.

지금 館長도 안 계시고, 事務局長도 사실상 空席이고, 고생 많으시죠? 상사들이 이렇게 두 분씩이나 비어도 業務에 지장은 없습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劉大運 委員; 지장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庶務課長 金光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劉大運 委員;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어려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劉大運 委員; 本委員이 世宗文化會館에 관한 理解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藝術의 殿堂은 事業部署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基本的인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藝術, 글자그대로 理解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世宗文化會館長은 어떤 行事로 어디에 며칠간 갔습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市立舞踊團이 프랑스의 초청을 받아서 프랑스와 스위스 두 군데에 지난 10月 14일부터 11月 3일까지 20日 동안 出張을 갔습니다.

○劉大運 委員; 外國의 예를 들어보면 그 藝術團의 團長이 모든 役割을 하지 世宗文化會館長이 職責의 特性上 거기까지 가서 20日을 소모해야될 理由가 없다, 本委員은 잘라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答辯하실래요?

○庶務課長 金光秀; 團長이 해야 될 役割과, 또 우리 世宗文化會館 機關의 長으로서 할 役割이 다르기 때문에 期間에는 問題가 있을는지 몰라도 하여튼 機關長님이 가셔서 民間外交 次元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劉大運 委員; 그렇습니까? 本委員은 世宗文化會館 館長職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서울市 理事官 職級 中 가장 물먹은 자리가 世宗文化會館長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方法을 하나 構想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일을 안하는 方法이 있고, 이런 職責으로 지금 현재 서울市 公務員 세계라든가 우리 市 議員님들도 그렇게 理解를 하고 있는데 그 部分에 대해서는 어떻게 答辯하실래요?

○庶務課長 金光秀; 나름대로 世宗文化會館 館長의 職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빠져난간다든가 하는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柳千秀 館長님께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勤務를 하고 가셨습니다.

○劉大運 委員; 저도 柳千秀 館長 잘 압니다. 柳千秀 館長을 나도 잘 알아요. 그분도 찍혀서 갔지. 그리고 世宗文化會館의 역대 事務局長 中 別定職이 任命된 적이 있습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88년부터 89년까지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劉大運 委員; 좋습니다.

다음, 事務局長님 發言臺로 나와 주십시오.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世宗文化會館 運營과 관련된 部分이 아니고 事務局長으로서의 業務와 관련된 事項을 개략적으로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 職級을 보니까 別定職 3級으로 되어 있는데 補職을 받

으시기 전에는 뭘 하시다 오셨나요?

○事務局長 盧俊燦; 經營諮問會社를 運營했습니다.

○劉大運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事務局長께서도 그렇게 理解를 해 주리라 믿습니다. 만일에 理解를 못하신다면 理解될 수 있는 그런 次元에서의 研究努力이 필요할 것입니다.

事務局長으로 任命을 받아서 그 職務를 하지 못할 事由에 대해서는 本委員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事務局長으로서의 이 文化教育委員會 決算과 관련된 그런 事項에 있어서 여기에 와서 答辯하라고 보자고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냐, 世宗文化會館長이 없고 事務局長이 없고, 議會의 경시풍조가 너무 만연되어 있지 않느냐, 이 世宗文化會館의 問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部分이 市長에게 問題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問題라면 어떤 問題냐, 서울特別市長으로서 事務局長을 편의상 秘書室長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 理解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의는 갖춰야 할 것 아니요, 예의. 趙淳 市長께서 本人이 다 責任을 질테니까 文化教育委員長이나 委員들한테는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안했어요?

○事務局長 盧俊燦; 그런 적이 없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러면 事務局長의 독자적인 判斷 아래 여기 와서 諒解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事務局長 盧俊燦; 제가 미처 判斷을 내릴 그럴 겨를이 없었고요, 아까 사과말씀 올린대로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랬던 點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劉大運 委員; 事務局長님 말이죠. 서울特別市가 公務員이 5萬 3,000名이 넘습니다. 豫算이 방대합니다. 人口가 大韓民國의 1/4입니다. 이런 市長을 보필하는 秘書室長이 그런 예의범절도 갖추 수 없다면 能力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당한 比重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막중한 業務에 補佐 좀 해 달라 이런 뜻으로 採用된 것 아닙니까?

더욱이 本委員이 분개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業務를 모르니까 報告를 직접 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諒解를 구하려면 여기와서 구해야지, 여기가 서울市議會 議長의 部下 機關입니까? 그리고 李海瓚 副市長의 部下機關이에요, 여기가?

왜 外部的으로 請託하는 것이에요?

방금 本委員이 質疑하려고 준비하다가 呼出이 왔어요. 당신의 그런 태도가 틀렸다 이것이야. 委員會를 뭐로 보는 것이에요? 國會議員이나 서울市 副市長이나 이런 사람들의 下部機關으로 보입니까? 答辯해 보세요.

○事務局長 盧俊燦; 委員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제 말씀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연락을 받아서 제가 바로 서울驛에서 委員長님께 電話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委員長님께서 빨리 오라고 하셔서 서울驛에서 가던 곳을 갔다가 오는 바람에 時間이 한 20分 遲滯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저희 副市長님을 뵈어서 지금 어디를 가는 길이나 그래서 제가 議會에 가서 答辯을 하러 간다하니깐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어서 副市長께서 電話를 하시고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委員님께 個人的으로

분명히 約束을 드리겠는데 어떠한 國會議員이나 어떠한 분에게도 제가 부탁을 올린 적은 없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러면 이 안에서 얘기했던 것이 바람타고 汝矣島로 날라갔나요? 나한테 電話 준 國會議員 나리가 이 呼出番號를 모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業務의 性質上 理解를 해 달라는 委員長과 委員會에 속해 있는 委員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었을 것인데 貴官들이 보는 서울市議會 議員은 마치 國會議員의 下部機關이에요.

또 李海瓚 副市長이 같은 野黨을 했던 그런 副市長으로서 壓力의 手段으로 活用하려고 하는 活用打입니까? 李海瓚은 李海瓚이고, 서울市議員 劉大運은 劉大運이에요.

내가 볼 때는 말이지요, 다음 번에 本會議場에서 분명히 내가 이런 問題를 舉論하겠지만 서울市 副市長이면 副市長답게 서울市議員에게 예의를 갖추 줄 알아야 돼요. 問題가 있는 文件을 말이지, 資料 要求를 하면 오히려 電話를 해서 막는 현상도 생긴다 이것이에요.

○委員長代理 鄭韓植; 事務局長님, 신속히 정중히 사과말씀 드리고, 本 質疑를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조금만 諒解해 주세요.

事務局長님께서 서울驛에서 온다고 해서 우리 기다렸습니다. 1時間 15分을 기다리다가 30分정도면 오겠지, 1時間 15分 기다렸어요. 가려고 하는데 電話가 왔어요. 貴官이 여기 도착하고도 남은 時間에 서울市議會 議長한테 委員長한테 電話가 왔어요. 會議가 進行 안 되고 있느냐, 文議長이 어떻게 압니까?

두번째 얘기는 退勤하고 가는 길에 핸드폰으로 電話가 또

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質疑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呼出이 왔어요. 이래도 됩니까?

그러니까 貴官은 이 委員會에 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높은 양반들의 백만 믿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돼요?

○事務局長 盧俊燦; 허락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점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솔직하게 해 보세요.

○事務局長 盧俊燦; 저는 委員長님과 通話하면서 委員長님께서 指示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와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委員會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行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個人的으로 그 어느 누구한테라도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또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분명히 제가 여러 委員님들 앞에서 약속을 올리는데 이러한 問題를 가지고 제가 감히 委員님들을 상대로 누구한테 부탁을 올린다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約束을 올리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앞으로 事務局長께서 마뿐 館長을 輔弼하는, 委員들 다 압니다. 부를 일이 없을 것이에요. 예의는 갖추고, 또 이런 일이 追後에 發生한다 하더라도 貴官 스스로가 解決하려고 하는 努力이 있어야 돼요, 外部의 壓力이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解決의 方向을 찾으면 誤解는 誤解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事務局長께서 말씀하신 그런 部分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앞으로 죽 지켜보겠습니다. 秘書室長이 市議員들

에 대한 바람직한 行動이 보인다면 市長도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業務上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는 그런 部分을 豫告하여 遮斷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서울市長이라고 그래서, 또 같은 野黨을 하던, 年齡的으로 내가 後輩입니다만 副市長이라고 해서 許容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못박아두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事務局長 盧俊燦; 잘, 알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事務局長,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리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盧俊燦;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저의 불찰로 인해서, 잘 모르는 실수로 인해서 여러 委員님들께 잠시라도 어려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막중한 委員會의 日程에 지장을 끼쳤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注意를 기울여서 그러한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다음 林靜枝 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林靜枝 委員; 林靜枝 委員입니다.

業務報告 4페이지에 人力에서 會館運營 要員이 210名이고, 藝術團體가 609名 中에서 有給이 349名, 無給이 260名인데 無給은 어떤 사람입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有給은 저희 世宗文化會館에서 報酬가 나가고 있는 藝術團員을 有給으로 하고, 無給은 少年少女合唱團은 團長과 總務, 企劃은 常任으로 있고, 나머지는 전부 無給입니다.

평소에는 學生들이기 때문에 우리 世宗文化會館에서 연습을 한다든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公演이 있을 때만 와서 연습을 해서 公演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靑少年交響樂團이 있습니다. 靑少年交響樂團 역시 無給입니다.

그리고 또 오페라團이 있는데 오페라團에서 有給이 團長님 하고 總務, 企劃 세 분을 빼고 나머지 이십 분이 無給으로 되어 있습니다.

○林靜枝 委員; 그 오페라團은 年齡이 어떻게 되나요?

○庶務課長 金光秀; 年齡이 20代부터 50代까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오페라團에는 無給으로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TO에 불과해서 현재는 그때 오페라가 있을 때마다 바로 새로 採用을 해서 公演을 합니다.

○林靜枝 委員; 제가 왜 이런 質問을 드리느냐 하면 藝術하시는 분들이 生活이 어렵지 않은가, 藝術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무척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아는데, 그분들에 대한 禮遇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會館에 있는 一般職, 技能職, 또 別定, 專門職 이런 분들하고 藝術團體 有給에 계신 분들하고의 月給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庶務課長 金光秀; 네, 바로 報告드리겠습니다.

95年度의 數値를 가지고 나중에 今年度의 우리 監査를 할 때도 이 問題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市立藝術團體의 團員의 報酬는 國立과 均衡을 맞추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團長과 指揮者의 경우에는 市立이 月 241萬 8,000원입니다.

國立의 경우에는 218萬원해서 市立藝術團이 111%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樂長의 경우에도 市立藝術團體가 214萬 3,000원, 國立이 194萬 5,000원 해서 110%를 우리 市立이 더 받고 있습니다.

中堅團員의 경우에는 우리 市立이 133萬 3,000원, 國立이 134萬 1,000원 해서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3年짜리 初任團員의 경우에 내려가서 우리가 조금 적습니다. 初任團員의 경우에는 저희 市立團體의 경우에는 77萬 7,000원인데 國立의 경우에는 88萬 4,000원을 받아서 92.1%입니다만 이 初任團員의 報酬의 基準 自體가 9級 公務員의 初任給이 賞與金까지 전부 다 합해서 77萬 7,000원입니다. 거기다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問題가 생겼는데 昨年度에 해서 今年度에 들어오면서 이 갭을 메우자 해서 상당히 많이 현재 報酬를 改善해 나가고 있습니다. 賞與金의 경우만 하더라도 94年度에 저희 藝術團體가 400%를 받았는데 95年度에는 500%를 받고 있고, 96年度 豫算에는 600%를 현재 算定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報酬 以外の 出演料 이것도 1995년부터 策定을 했습니다만 定期公演을 제외하고 他 團體에 支援을 해 준다면, 企劃公演이라든가, 분수대 공연 이런 데는 1回當 1人 2萬 5,000원씩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5年 10月 현재에 7,547萬원이 支給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外部出演 補償費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藝術團員들이 다른데 가서 支援公演을 해 주면, 예를 들어 1,000萬원을 그쪽에서 돈을 주었다 하면 1,000萬원을 받아서 바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歲入原則에 의해서 市歲入으로 바로 넘김과 동시에 補償金에 策定되어 있는 1,000萬

원을 바로 支出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0萬원이 다시 우리 藝術團員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보면 94年, 95年度가 바로 이러한 돈으로써 各各 豫算에 2億원씩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年度에는 6,140萬원이 支出되었고, 95年 10月 현재는 8,900萬원이 支出이 되었습니다. 報酬의 경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來年度에도 그 豫算에서 조금 더 引上하는 公務員 報酬引上案과 마찬가지로 引上하는 것으로 올려놓고, 특히 市長님께서 상당히 배려를 해주셔서 報酬라는 그런 概念보다도 어떤 公演이 있을 때마다 실질적인 支援이 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豫算을 현재 計上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林靜枝 委員; 저는 藝術을 직접 하시는 분하고 運營하시는 분하고의 比較를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庶務課長 金光秀; 그것은 예를 들어 林委員님께서 전번에 質疑하신 資料를 提出해 달라는 內容을 제가 봤습니다만 저희 別定職에 대한 이런 것은 一般公務員들에 대해서 우대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혀 그것이 없고, 別定職이나 一般職이나 전부 公務員報酬規定에 의해서 똑같은 報酬를 받고 있는 따름입니다.

○林靜枝 委員; 제 意見은 藝術을 하시는 분은 다른 一般職 公務員보다 더 禮遇를 해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좀 더 參酌을 해 주시고 많이 키워 주셨으면 합니다.

○庶務課長 金光秀; 네, 알겠습니다.

○林靜枝 委員; 그리고 14페이지 밑에 藝術團體 運營과 藝術團 運營은 어떻게 틀립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이것이 藝術團體 運營이라 하면 豫算의 款·項·目에 대해서 크게 보아서 藝術團體 運營이고, 藝術團 運營이나 마찬가지로 概念입니다. 같은 概念입니다.

○林靜枝 委員; 그런데 어떻게 區別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인데?

○庶務課長 金光秀; 款·項·目이 예를 들어서 이제 世宗文化會館 제일 위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一般會計, 文化 및 體育費, 文化藝術振興費, 文化藝術振興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과 똑같이 細項으로 넘어가면서 藝術團體 運營과 藝術團 運營이라 그러는데 團體運營이나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藝術團 運營에서 一般運營費, 補償金, 資產取得費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林靜枝 委員; 文化事業이 앞으로 21世紀의 重要事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不用額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겠어요?

○庶務課長 金光秀; 그것은 아까 專門委員님께서도 指摘을 하셨습니다만, 가능하면 豫算自體도 적다고 하면서 不用額이 많아진다는 것은 問題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은 執行殘額과 事業을 당초에 報告를 드렸습니다만, 市立劇團 未創團 때문에 不用額이 사실상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執行殘額이 85%에다 전부다 落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15%정도 남게 되고, 使用未發生이라 해가지고 支出할 필요가 없는 問題가 생기게, 豫算은 計上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問題가 있는데 앞으로는 藝術團의 경우에는 豫算이 세워진 範圍內에서는 최대한도로 使用하도록, 그리고今年에도 매년 아침에 저희 나름대로 會議를 하곤 합니다만, 年末이 다 되고 하니까 不用額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부 체크해 가지고 챙겨서 100% 支出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現在 챙기고 있습니다.

○林靜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徐在浣 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徐在浣 委員; 徐在浣 委員입니다.

世宗홀 賃貸契約이 94年 12月 30日字로 滿期가 되는 것이죠? 알고 계십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93年度末에 委託經營契約이 끝이 나고 94年 1月부터 새로 契約이 되었습니다.

○徐在浣 委員; 契約이 어디하고 되어 있습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크라운호텔하고 되어 있습니다.

○徐在浣 委員; 그런데 크라운호텔하고 되어서 거기 1億 8,000萬원에 대해서 61.9%, 1億 1,000萬원 정도를 收納했다고 그랬죠?

○庶務課長 金光秀; 네.

○徐在浣 委員; 理由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庶務課長 金光秀; 그것은 基本的으로 世宗홀의 委託經營料를 徵收하는 것은 1月 1日부터 해서 12月 30日까지의 經營料를 公認會計士들이 決算檢査를 통해가지고 다음年度에 納付하게 됩니다. 그래서 94年度の 歲入이 된 것은 實質的으로 93年度 조선호텔하고 한 實績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에 나온 것은 綜合的으로 1億 1,000萬원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世宗홀에서 納入한 金額은 54萬 2,000 원밖에 안됩니다, 그 當該年度 93年度에는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93年度 年末이 되어 가지고 契約期間이 끝이 나가지고 公開競爭入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조선호텔의 경우에는 公開競爭入札時에 6%를 써내고, 크라운호텔은 10.51%를 써냈습니다. 總 賣出額에서 損害나든 말든

10.51%를 우리 市歲入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호텔에서 契約이 끝나버리니까 거기 從業員의 退職金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주게 되어 가지고 問題가 發生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公開를 하니깐 實質的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實質的으로 94年度の 經營料는 95年度 年初에 納付되었습니다만, 2億 5,300萬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今年度の 경우는 한 2億 7,000萬원 정도쯤 될 것으로 豫想이 되고 있습니다.

○徐在浣 委員; 그러니까 契約者가 바뀔으로써 몇 % 정도 收益이 늘어났다고…….

○庶務課長 金光秀; 한 40 %정도는 收入이 늘어났습니다만, 그 당시의 54萬 2,000원을 比較한다면 한 1,000% 정도쯤 됩니다만, 그것은 非正常的인 것이었고 40%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昨年度 지금 李載震 委員님 여기 계십니다만 監査時에 여러 번 指摘을 하셔가지고 많이 改善을 했습니다.

○徐在浣 委員; 두 번째 質問이 되겠습니다.

우리 專門委員으로부터도 指摘事項이 나왔습니다만, 88年度부터 歲入이 10億 3,100萬원, 94年度 歲入이 14億 3,400萬원에서 7年 동안에 約 39.1%의 伸張을 보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극히 低調한 것이라고 認定할 수 있죠?

○庶務課長 金光秀; 그렇습니다.

○徐在浣 委員;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收入을 올리는데는, 물론 自體的인 다 團體가 있어서 하고 있지만 言論社와 共同主催를 함으로써 事業性的 成果를 올리고, 또 엄청난 赤字運營을 다소나마 補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94年度の

言論社와의 合作公演은 몇 件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收入은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요? 企劃公演이 그런 쪽에서 나온 것입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그렇습니다, 企劃公演입니다.

○徐在浣 委員; 거기보면 豫算과 實績이 約 4,100萬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企劃公演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對策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庶務課長 金光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매해마다 自立度 自體가 원체 낮고, 아무리 世宗文化會館 藝術團體 藝術을 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너무 實績이 低調하다는 指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指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言論社와 協演하는 그것을 상당히 擴大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來年度 計劃에도 그것을 대대적으로 擴大할 그런 計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昨年度 같은 경우에는 貸館收入 같은 것이 적었습니다만, 貸館收入을 今年度에 와서 계속해서 늘려가지고 貸館收入이 많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來年度에는 지금 현재 作業이 거의 다 완전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常任委員會에서 議決을 거쳐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世宗文化會館의 貸館料 自體가 다른 데 보다 조금 싸니까, 國立하고 比較하면 거의 비슷합니다만. 藝術의 殿堂이라든가 다른 데 比較해 보아도 우리가 조금 싸기 때문에 그것을 使用料手數料 條例를 改正을 해서 조금 인상시키고, 방금 指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言論社와 協연이라든가 이런 企劃公演을 대대적으로 擴大할 그런 計劃을 가지고 있습니다.

○徐在浣 委員; 本委員이 參考하기 위해서 94年度와 현재 95年度의 言論社와 共同主催로 한 公演實績을 詳細하게 書面으

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庶務課長 金光秀; 알겠습니다. 書面報告드리겠습니다.

○徐在浣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林鍾化 委員 質疑하세요.

○林鍾化 委員; 林鍾化 委員입니다.

決算檢査 12페이지에 보면 世宗홀 雜收入 內譯 해가지고 世宗홀 電氣使用料 해가지고 6,423萬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世宗홀에 대한 電氣를 使用하게 되면 世宗홀만 따로 韓電에서 架設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庶務課長 金光秀; 별도로 架設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世宗文化會館에 電氣가 메인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와서 거기에 별도의 計量器는 設置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전기, 가스로가 나오게 되면 歲入을 잡고 저희 豫算에 編成되어 있는 것 가지고 支出을 하고 합니다.

○林鍾化 委員; 그러면 世宗文化會館에서 一括的으로 支出을 하고, 그 部分에 대해서는 별도로 잡는다.....

그 다음에 上·下水道料 還拂이라 해가지고 3,400萬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理由에서?

○庶務課長 金光秀; 좋은 指摘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上·下水道 自體가 世宗홀에 별도로 設置가 되어 있었습니다. 計量器도 設置가 되어 있었는데 한꺼번에 上水道 事業所에서 그것하고 또 말하자면, 二重으로 저희들에게 돈 받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結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4年度에 發見을 해가지고 89년부터 94年, 5年間に 걸쳐서 낸 金額을 計算을 해 보니까 3,400萬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世宗文化會館 우리 施設課에서 했습니다만, 거기다 청구를 해가지고 還拂을 받았습니다.

○林鍾化 委員; 그렇다면 95년부터는 그것이 正常的으로 됐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世宗文化會館은 文化藝術을 管掌하고, 또 모든 國民들에게 文化藝術을 적극 勸獎하는 團體이기 때문에 이런 收入을 늘릴 수 있는 部分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歲入을 늘려가지고 그것을 모든 서울市民에게 골고루 惠澤이 갈 수 있도록 적극 檢討해서 運營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庶務課長 金光秀; 잘 알겠습니다. 措置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許光泰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光泰 委員; 評光泰 委員입니다.

不用額에 대해서 몇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未創團으로 인한 不用額이 4億 8,509萬원으로 되어 있는데, 現在 未創團된 劇團의 準備狀態는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劇團의 경우에는 昨年度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市立劇團을 우리가 8個 藝術團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한 개의 劇團을 더 만들자는 얘기가 되어가지고 推進을 했습니다.

그런데 問題는 劇團을 創團하려고 하는 우리 演劇人들 中에서 우리 世宗文化會館의 藝術團體로 存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市長님 直屬으로 해서 별도로 取扱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問題는 그것으로 인해서 劇團을 創團하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今年度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世宗文化會館까지 그것이 정확하게 아직 傳達이 되지 않았습시다만, 今年度에 와가지고 적어 來年度에는 劇團을 創團하도록 內部決定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그렇다면 지금 말씀에 의하면 根本的인 理由가 틀린데요, 市長의 直屬機關으로 해 달라, 그렇다면 95年度, 今年度에는 可能한가요?

○庶務課長 金光秀; 今年度에는 市立劇團을 創團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8個 藝術團體가 있는 世宗文化會館의 所屬으로 와도 좋다는 얘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政策的인 問題가 되어서 저희 執行部인 世宗文化會館은 정확하게 意思가 傳達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다음 두 번째 質疑하겠습니다.

豫算執行方針에 따라서 5 내지 10%의 節減을 執行해서 4億 6,330萬원의 豫算執行으로 인한 節減을 했는데 이쪽에 뒤에 關係公務員 中에서 한 분 좀 말씀해 주시죠, 과연 그런 指針속에서 効果적인 節減을 했는지 與否에 대해서 한 사람 對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管理係長 韓秉龍; 管理係長입니다.

豫算會計法에 의하면 工事を 하게 되면 工事의 入札을 보게 됩니다.

入札을 보게 되면 入札에서 最低下限價 이래서 最低落札制라는 制度를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50億원 이하면 最低落札價格을 따지게 되는데 85%이하에서는 落札이 안 되고, 85% 넘는 水準에서 最低價를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豫算執行할 때 보면 豫算計劃은 100% 잡지만 最低落札價로 따진다면 85% 밖에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의 節減效果를 볼 수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그 말씀이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5 내지

10%의 豫算節減하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經理係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理係長 姜永昌; 經理係長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 豫算編成指針에 의해서 모든 豫算案을 5% 내지 10%를 節減하도록 本廳의 指針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每 事業마다 그 나름대로 事業의 성질을 勘案해가지고 豫算節減 차원에서 사전에 그 부분만큼 節減해서 주도록 內部的으로 指針이 시달되어 있는, 거기에 따른.....

○許光泰 委員; 제가 여쭙고자 하는 質問의 趣旨는 그런 指針을 받았습니까. 經理係長님이라고 그러셨죠?

○經理係長 姜永昌; 네.

○許光泰 委員; 그런 指針을 받으셨는데 實行에 옮기면서 과연 節減의 效果를 얻으셨는지, 아니면 下部機關 중에서 일부 이것 다 써버려도 되는 것인데라고 不滿을 가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經理係長 姜永昌; 다른 機關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世宗文化會館에 대해서는 豫算 5% 내지 10% 節減으로 인해가지고 事業의 차질이 오거나 그런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劉大運 委員; 議事進行發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네, 劉大運 委員님 말씀하세요.

○劉大運 委員; 許光泰 委員님 質疑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本會議도 그렇고 常任委員會도 그렇고 規則이 있습니다. 規則이 있어서 規則대로 정 運營할 수 없다면 양해를 구해야 되는 事項이지요. 그래야지 뒤에서 불쑥불쑥 나와서 아무나 答辯하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許光泰 委員…….

○許光泰 委員; 계속 質疑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質疑 答辯을 하면 항상 實務者의 차원에서 答辯의 要旨가 올라와서 責任者가 答辯을 形式化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가 質問하고자 하는 本 趣旨는 지금 下部機關에서 물었을 적에 5%에서 10% 節減을 해도 業務進行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豫算을 編成할 당시에 過大編成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指摘이 되고, 또한 앞으로의 豫算에서 5% 내지 10%를 節減해서 짜도 무방하다, 이런 結論이 도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下部에서 있던 참소리를 듣기 위해서 本 委員이 答辯을 要請했던 事項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質疑하겠습니다.

藝術團體 運營에서 8個 團體가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오페라단 여기에만 無給團員이 있습니다. 有給團員과 無給團員의 基準은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答辯해주시죠.

○庶務課長 全光秀; 有給團員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有給團員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關係規定에 의해서 團長의 경우에는 3年間 契約을 해 있고, 그 다음에 團員의 경우에는 1年間 委囑職으로서 契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正式으로 契約公務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有給의 경우에는. 그런데 無給의 경우에는 契約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가면 또다시 採用을 해서 選拔試驗을 거쳐서 採用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差異

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評光泰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서 120名, 120名, 무려…….

○庶務課長 金光秀; 260名입니다.

○評光泰 委員; 260名の 人員이 無給團員이 되는데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豫算 不用額을 이만큼 많이 發生시켜 놓은 상태에서 또 本 趣旨로 안고 있는 世宗文化會館이 汎國民的으로 서울市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部分에 대해서 더 활발히 움직이기 위해서 無給을 有給으로 基準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요?

○庶務課長 金光秀; 잘 알겠습니다. 좋은 指摘도 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問題가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國民學校에서부터 高等學校 學生들까지, 그 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의 경우에는 高等學生에서 大學生까지, 거의 다 大學生들입니다. 만약에 有給으로 한다면 團員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學生이 中學校에, 제가 지난번에 5日間 소년소녀합창단과 홍콩공연을 하는 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전부다 學生들이라서 실질적으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大學進學이라든가 이런 데 공부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지, 이런 데 나와서 계속해서 有給團員으로 활동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運營을 하면서 藝術團體長의 어려움이 다들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學生들이기 때문에 연습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藝術團의 실력이 先進外國에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問題는 有給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靑少年이라든가 또는 소년소녀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그런 사람을 對象으로 해서 뽑는 경우에는 有給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페라단 같은 경우에는 有給을 고려해 본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許光泰 委員; 그러면 結論지어 말씀드리면 점진적으로 오페라단은 우선적으로 有給을 檢討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교향악단도 有給으로 檢討해 볼 수 있다?

○庶務課長 金光秀; 네, 차츰 補完을 해서.

○許光泰 委員; 이렇게 本委員이 알고 있어도 되겠죠?

○庶務課長 金光秀; 네.

○許光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李善宰 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善宰 委員; 李善宰 委員입니다.

世宗文化會館에서 市民들이 世宗文化會館을 자주 찾고, 또 世宗文化會館 입장에서 보면 稅收도 增大한다 이런 의미로 아마 會員制를 實施하고 계신 줄 아는데 지금 進陟事項이 어떻습니까?

會員數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도 그것을 開發해 나갈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財政自立度가 11.6%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 貨館한다든지, 公演한다든지 하는 全體 日數가 1年 며칠이나 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냥 비어 있는 날은 없는 것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公演을 한다 그래서 몇 회 했다, 며칠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世宗文化會館 大講堂에 있는 座席을 다 메웠느냐, 안 메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말하자면 空席率이라고 할까요, 차지 아니한 자리수가 몇 %나 되는지, 또 公演했을 때에 有料觀客하고 招請이나 이렇게 해서 無料觀客하고의 관

계는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庶務課長 金光秀; 거기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會員制 關係 問題는 저희들이 8個 藝術團體를 總括하는 會員制를 해서 年間 10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 會員들의 경우에는 每 우리 藝術團體 公演의 경우 招待券을 두 장씩 보내 주었습니다.

한때 400名 정도의 會員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委員님들께서도 新聞에 지난번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8個 藝術團體를 포괄하는 會員制가 會員들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問題가 있고, 또 改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식으로 新聞에 分析 報道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今年度 11月부터 또는 12月부터 이 會員制 問題를 改善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하니까 藝術團體 쪽에서도 보면 자기가, 예를 들어 KBS도 藝術會員制가 있습니다. KBS교향악단이 會員制가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교향악단의 會員이 아니고 포괄해서 8個 團體다 되니까 藝術團體 쪽에서도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問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來年度의 경우에는, 今年도 11月부터 12月부터도 현재 計劃 中에 있습니다만 시립교향악단의 경우에는 별개의 會員制를 運營하더라도 關係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어떤 便宜한 점을 더 提供해 준다면, 예를 들어 우리 駐車場을 利用할 경우에는 50%를 디스카운트해 준다면 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 會員들을 확보하게 된다면 고정고객이 많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현재 計劃 中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한 200名 内外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來年の 경우 시립예술단체를 별개로 해서 하고, 또 합창단이라든가 유사한 것을 한꺼번에 묶어

서 하는 방법을 현재 研究 檢討 中에 있기 때문에 곧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理解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財政自立도가 상당히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貸館公演日數 이것은 숫자로 나온 것은 제가 별도로 書面報告해 드리고요, 비어 있는 날의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貸館에서, 貸館을 1년에 한 번씩 審査해서 합시다만 비어 있는 날이 갑자기 생겼다, 貸館한 사랑이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전에 申請한 사람, 탈락된 사람을 가지고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즉각 다른 사람을 또 選擇합니다. 昨年의 경우 어떤 政府行事 같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公演의 問題 때문에 이런 비어있는 날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小講堂에 대해서 저희가 小委員會를 열어서 그 전에 탈락한 열 몇 사람을 가지고 다시 審査를 해서 즉각 메웠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公席率에 대한, 座席을 메웠느냐 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大講堂의 경우에는 3,895席 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10年인가 5年인가 저희들이 計算을 해보니까 1回 平均當 1,950席을 채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공석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世宗文化會館 3,895席인데 3層의 경우에는 거의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文化觀光局 할 때 中講堂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中講堂 같은 것이 200席 규모가 가장 보기에 편합니다. 3,895席을 만든 理由는 제가 생각하

기에는 그 당시에 어떤 政府行事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層 같은 경우에는 멀기 때문에 제가 봐도 보이지도 않고, 소리로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3,000원씩 이렇게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니까 예를 들어 3層 같은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3層의 경우에는 표를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層까지만, 사람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까지만 팔고 그 나머지는 비어 놓는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거기까지다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問題는 有料觀客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有料觀客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사실상 有料觀客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外國에서 新聞社라든가 言論社 같은 데서 보면 外國에서 유명한 藝術團體를 데리고 왔을 때는 뭐 協贊社라든가 하는 데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내고 하지만 저희들의 경우에는 豫算이 한정된 豫算을 가지고 公演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뒤따르지 못하는 部分이 상당히 있어서 有料觀客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하느냐 그 部分에 대해서 상당히 藝術團體의 長들하고도 대화를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李善宰 委員; 比率은 잘 모르시겠고요?

○庶務課長 金光秀; 네, 比率은 計算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李善宰 委員; 그 다음에 會員制 이렇게 計劃하실 때에는 모두다 깊이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서울 世宗文化會館이 計劃을 해서 實施했는데 겨우 會員 400名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그러면 나는 弘報不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市民 중에서 世宗文化會館이 이런 會員制를 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과연 몇 사람이나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전체를 알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文化空間을 많이 갖지 못해서 걱정인 狀況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施設이 이렇게 자리가 비어서 한다거나 有料 못하고 거저 하는 것도, 그런다면 計劃的으로 아주 이 다음에 觀客을 창출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計劃的인 計劃을 해보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한다고 그러면 그냥 어디다가 초청장이나 줘서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대체 改善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有料觀容을 못 구해서 無料로 하려고 이렇다면 그것도 計劃的으로 해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아, 좋구나 이 다음에 나는 가보고 싶다, 돈 내 고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고, 世宗文化會館이 이렇게 활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庶務課長 金光秀; 잘 알겠습니다. 弘報에 관한 問題는 그렇지 않아도 會員制를 하면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新聞社에다 報道資料라든가 이런 것만 줬는데 보다 좀 확대를 해서 弘報를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指摘해 주신 대로 더욱 弘報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計劃的인 問題 하는 것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措置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梁東錡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東錡 委員; 梁東錡 委員입니다.

本委員은 다른 것은 그만두고 여기에 보면 區民會館 公演을 많이 했는데 區廳에서 文化行事 이런 것을 實施했을 적에 世宗文化會館과 협의를 해서 市立藝術團體 公演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는 道峰區입니다. 道峰區인데, 道峰區 변두리 같은 데서 우리 市立藝術團體가 와서 하는 것 나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고, 그러한 利用度가 서울市內 25個 區廳 中에서 어느 곳이 많은 것인가, 우리같이 변두리 落後된 쪽에서는 利用度가 적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물론 현재 區民會館 利用을 하는 公演團體라는 것이 여기 8個 團體 中에서 사실은 區民會館 나가서 公演할 수 있는 團體가 몇 個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庶務課長 金光秀; 그렇습니다.

○梁東錡 委員; 그래서 사실상 한 가지 추궁을 한다기보다도 市立, 소위 서울市的 市立劇團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不用額으로 넘긴다 이런 것을 볼 적에 한심스럽고, 區廳의 區民會館을 利用해서, 아까 우리 同僚委員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서울市民이 世宗文化會館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江北이나 江西쪽에 있는 우리 市民들은 交響樂團을 보러갈 水準이 아직 못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이 많고 저희들한테도 몇 번 초청장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弘報도 弘報려니와 各 區廳의 區民會館하고 有效適切하게 紐帶를 가져서 區民들로부터 活性化가 되면 世宗文化會館도 좀더 位相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 동안에 道峰區의 區民會館을 利用하는 것을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實質的으로 今年度에 들어서 區民會

館을 利用을 해서 어떻게 行事를 했는지, 또 行事를 했으면 몇 군데나 했는지 그런 것이 나오면 지금 答辯을 안해도 좋고요, 그런 것을 參考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庶務課長 金光秀; 네, 實績에 관한 것은 제가 別途로 書面報告드리고요, 區民會館 公演에 대해서 간단히 概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春秋로 各 區에다 저희들이 協助公文을 내서 區民會館 公演이 필요한 곳이 있는가 與否를 確認을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實質的으로 많이 원한다고 우리 市民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저희들에게 區民會館에서 公演을 해 주십사 하고 要請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今年 下半期 때만 하더라도 이번에 분수대공연이 끝났기 때문에 區民會館 公演을 계속해서 實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받아본 結果 2個 區廳만 希望을 했고 나머지 區廳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 다. 앞으로 委員님들께서 積極的으로 弘報를 해 주셔서 저희 市立藝術團體를 많이 活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다음은 林靜枝 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林靜枝 委員; 林靜枝 委員입니다. 質疑라기 보다는 강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아까 許光泰 委員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無給 260名은 有給에 비해서 너무 많기도 하지만 20歲 내지 50歲 以上 오페라단 이런 분들에게까지 無給이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당장 來年부터라도 이분들을 有給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그렇고, 또 初·中·高 學生 들 合唱團한테도 적으나마 獎勵金을 支給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庶務課長 金光秀; 合唱團의 경우는 獎學金이라는 名目으로 애들에게 불과 1년에 10萬원 정도 나가서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今年에 20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단의 경우는 實質적으로 20名の TO는 있습니다만 현재 無給으로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나와서 演習을 한다든가 하는 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豫算을 確保를 해서 有給으로 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演習을 하는 그런 形態로 바뀌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參考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靜枝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劉大運 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劉大運 委員; 世宗文化會館에 개가 자꾸 들어가서 藝術적으로 못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가 자꾸 들어간다는 얘기는 先進國에서 藝術團體를 運營함에 있어서는 國家의 큰 行事を 양게 되는데 國家元首가 들어가면 개가 먼저 들어가서 냄새를 맡아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상당한 顧客들이 개 냄새 나서 잘 안 간단 말이에요.

豫算不用額을 나는 項目을 따로 짚지 않겠습니다. 94年度不用額과 95年度 世宗文化會館 運營하는 것을 對比해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첫째, 豫算을 編成할 때 좋게 말하면 公演回數가 不豫測해요. 나쁘게 말하면 주먹구구식 豫算編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이은 不用額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예로서 今年度 것을 예를 들어보면 交響樂團이 68%, 國樂管絃樂團이 48%, 舞蹈團이 89%, 歌舞團이 8%, 合唱團이 62%, 靑少年交響樂團이 無給입니다만 66%, 또 少年少女合唱團 이것도 無給입니다만 158%입니다.

이런 순위로 즉 進行되는데, 또 더군다나 재미있는 것은 14名의 有給을 둔 歌舞團의 경우 8% 水準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지금 나머지 95年度 豫算을 執行하려면 날짜가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이 部分 역시 不用으로 떨어질 確率이 매우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96年度 豫算은 좀더 투명성 있는, 그리고 좀더 확실한, 그래서 不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豫算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議會에서도 各種 計數라든가 審議를 거쳐서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當事者인 世宗文化會館에서도 過去나 未來나 또 이 世宗文化會館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方向으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庶務課長 金光秀; 잘 알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庶務課長이라고 그러셨죠?

○庶務課長 金光秀; 네.

○劉大運 委員; 庶務課長이 한 말씀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世宗文化會館에서 各 區의 區民會館에 이 團體를 活用할 수 있으려면 各 區廳의 公報室 豫算이 먼저 成立이 되어야 되는데 이 豫算을 成立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양쪽간에 전부 共同責任이 있다고 저는 보여줍니다. 世宗文化會館 內에 이러한 좋은 團體가 있으니까 區民會館을 活用해서 地域自治團體에서 이 많은 團體들을 活用해서 文化的 그런 價値觀을 느끼고, 그럼으로 인해 世宗文化會館이 더욱 發展될 수 있도록, 원래 世宗文化會館이 連營만 잘 되면 自立도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0에서 出發해야 됩니다.

自立도가 왜 필요합니까? 自立도라는 얘기는 돈을 벌어들이는 機構인데 藝術에서 돈벌어들이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어요? 連營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委員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自立度가 낮다고 그러합니다. 運營만 진짜 藝術的으로
끌어나간다면 國家나 該當 地方自治團體가 그 豫算을 마음껏
藝術을 하는 次元에서 支援을 해야 된다고요. 世宗文化會館은
自立度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두 분의 委員님께서도 言及을 하
셨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無給으로 주는 그런 團體의 公演回
數가 훨씬 많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項目을 新設
하세요. 獎學金條로 그렇게 1년에 10萬원 주던 것을 20萬원
으로 올린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團體가 二重苦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어린 學生들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아까
운 時間을 내지 못하는 하나의 苦衷이 여기에 있고요, 두 번
째 그 苦衷플러스 자기 돈까지 소모시켜야 되니까 더 안 오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그런 點이 있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런 點이 있다면 補完해야 되는데 補完해야
된다는 얘기는 項目新設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式으로 1
년에 돈 10萬원씩 支援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96年 豫
算에 項目을 新設할 用意가 있습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反映해 보도록 努力하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反映을 해 보시면 우리 委員會에서도 적극 도
와서 하나의 苦衷 정도는 이 靑少年들에게 덜어줘서 靑少年
들이 이 惠澤을 받은 후 자라 어른이 된 후에 世宗文化會館
과 우리 나라 藝術에 대한 關心度가 높음으로써 發展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項目 新設에 대해서 진짜 支援이 될 수
있도록 努力을 해서 우리 豫算審議 때 또는 監查 때도 이런
얘기가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확실한 代案을 가진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庶務課長 金光秀; 네, 정말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네, 李載震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世宗文化會館 館長이 지금 海外에 무슨 團體하고 갔다고 했죠?

○庶務課長 金光秀; 舞踊團입니다.

○李載震 委員; 舞踊團은 事前에 豫約을 하고 갔죠?

○庶務課長 金光秀; 네, 그렇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리고 公演도 어떤 計劃대로 갔고요?

○庶務課長 金光秀;네, 海外公演計劃에 의해서죠.

○李載震 委員; 그런데 사실 지금 事務局長이 任命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實質的으로 空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決算 檢査 豫定이 다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世宗文化會館 館長이, 물론 지금 世宗文化會館側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갔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너무 잘못된 處事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事務局長이 業務를 제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인데 業務를 볼 수 없는 事務局長, 물론 課長이 答辯을 해도 좋죠. 더 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앉아있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못한 點에 있어서 좀더 그 問題에 대해서 확실히 오시면 말씀을 전해 드리고.....

○庶務課長 金光秀;알겠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리고 우리 事務局長께서 아까 우리 同僚委員께서 상당한 질책을 했습니다만 실지 못 오신 것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理解를 할 수 있었는데 서울驛에서 온다고 해

놓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時間이 遲滯되었다 이거예요. 온다고 했으면 빨리 오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지금 現在 仁川에 있다든지 어디에 있으니 얼마 안에는 못 가니까 언제까지 가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기다리든지 어떤 뭐가 있는데, 서울驛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車가 막힌다 하더라도 10분이나 15分이면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긴 時間이 所要됐다 이거예요.

그러자 議長한테 電話가 오고 이렇게 하니 사실 우리 委員들로서는 아까 한 말이지만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處事에 이른 것입니다.

議長이 常任委를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합니까? 우리 常任委는 우리 固有의 權限으로써 모든 일을 執行할 수 있는데 말이지, 오히려 화를 일으키는 일이 되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까 劉大運 委員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小年少女合唱團이나 靑少年交響樂團에다 똑같이 20萬원씩 支給합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네.

○李載震 委員; 원래 이분들이 10萬원씩 주다가 몇 번 부르짖으니까 20萬원으로 상승이 된 것인데 실지 요사이 20萬원은 交通費도 안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今年에 조금 상승할 어떤 計劃은 가지고 있습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改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反映하기 위해서 조금..... 1人當 장학금을 이번의 경우에는 來年에 한 100萬원 정도 그래야 최소한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李載震 委員; 1學期 學資金은 못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정도는 최소한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無給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 하면 더 意慾的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每事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貫徹하고, 또 잘 안 된다 할 때에는 우리 委員會하고 折衷을 해서 최대한 貫徹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庶務課長 全光秀; 네, 잘 알겠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리고 세종홀 契約을 몇 年으로 지금 契約을 하지요?

○庶務課長 金光秀; 5年 單位로 契約을 하고 있습니다.

○李載震 委員; 사실 5年 後에 할 이야기가 됩시다만 5年이라는 세월이 너무 긴 세월 같아요.

왜냐,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物價가 引上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損害보는 장사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劉大運 委員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世宗文化會館에는 藝術을 위해서는 赤字를 낸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世宗文化會館 運營만은 최대한 黑字를 運營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地域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黑字를 가지지 못하고 적은 豫算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 契約期間을 앞으로는 5年보다는 한 3年쯤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확실히 參考를 하셔야겠어요.

왜냐 하면 契約해서 5年되다 보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말이에요. 첫 해에는 약간의 어떤 것일지라도 상당히 뒤에 가서는 赤字나 마찬가지로 그런 實情에 처해 버린다, 그래서 3年이라는 基準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從業員의 退職金을 지난번에는 市에서 주었습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精算하는 過程에

서.....

○李載震 委員; 어쨌든 精算金額은 市 金額과 조선호텔의 共同金額 아닙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아닙니다, 자기네들 利益金에서 그것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에게 納品하는 것입니다.

○李載震 委員; 그러면 조선호텔에서 支給한 것이네요?

○庶務課長 金光秀; 그렇습니다.

○李載震 委員; 지금 이번에 앞으로 세종홀 從業員의 金額은.....

○庶務課長 金光秀; 역시 委託經營業體인 크라운호텔에서 합니다.

○李載震 委員; 그러면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清掃用役期間은 얼마로 합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1年입니다.

○李載震 委員; 이 清掃用役期間은 2年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1年이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왜냐 하면 사실 入札을 떠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인데 入札을 따서 1年하고 다시 내 놓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與件속에 처하면 뭐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 2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누가 決定을 하지요?

○庶務課長 金光秀; 그것은 저희들이 2年으로 한다는 것은 内部的으로 方針을 받아서 決定이 되면 2年으로 할 수 있는 方法이 있습니다.

○李載震 委員; 단, 2年으로 하되 清掃狀態가 不良할 때는 中途에 解約할 수도 있다 이러한 條件을 해서 2年 정도는 해주어야 入札한 사람들이 그래도 할 수 있지, 每年 이것 한다

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問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來年 入札할 때는 그러한 制度를 좀 施行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世宗文化會館에 아까 보니까 機關室에 15名이고 照明室에 10名이 있는데요, 이 人員은 100% 꼭 필요한 것입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네, 필요합니다.

○李載震 委員; 機關室은 몇 군데나 됩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저희 世宗文化會館이 1萬 6,565坪이 되어서 크기 때문에 內容別로 보면 機關室이라고 하지만 機關室이 地下에서 양쪽에 전부 다 있고, 그 사람들이 勤務하는 곳은 한 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李載震 委員; 그러면 2個組로 해서 交代勤務를 해야 할텐데 이 人員 가지고는 부족하네요?

○庶務課長 金光秀; 그래서 24時間씩 이렇게, 밤에는 當直하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退勤하고 이렇게 輪番制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러면 24時間 交代할 필요는 없네요? 輪番制 하나씩만 빼고요.

○庶務課長 金光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리고 照明室의 경우에는 10名이지요?

○庶務課長 金光秀; 照明室의 경우에는 왜 10名이 필요하냐 하면 저희들이 公演機關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가 1人 照明이 아니고, 公演할 때 라이트를 비춘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핀을 쏜다든가 하는 그런 技術者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照明이라는 것이.

○李載震 委員; 아니, 그래서 照明이란 것은 항상 필요로 하

고 다 해 주어야겠지만 이것이 自動化 되어서 이렇게 많은 人員이 필요할 것인가 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갑니다.

왜냐 하면 주로 夜間公演을 많이 하고, 晝間에는 公演이 적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많은 人員이 필요한가? 사실 한번 點檢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技術者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고, 필요하다니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世宗文化會館의 形便 아닙니까? 지금 施設管理課長은 技能職이십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技術職입니다. 工業職입니다.

○李載震 委員; 그래서 課長님께서 잘 管理를 하시겠지만 사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 管理監督을 하기 어려운 實情에 처해 있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 좀더 한번 살펴보세요서 人員이 不足한 데는 채우고, 많은 곳에는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契機를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庶務課長 金光秀; 간단하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指摘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해 나가는데 전부다 反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일 처음에 세종홀에 대해서 5년이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李委員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만 昨年에 많이 指摘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賣出額의 10.51%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物價가 引上되면 引上된만큼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에 조선호텔하고 할 때는 사소한 修理라든가, 什器

같은 것은 市에서 전부 다 購入을 해 주는 形態였는데 이번
에 새로 하면서 사소한 修理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委託經營
者가 전부 다 하도록 했고, 什器도 자기네들 돈 가지고 전부
다 하도록 했습니다. 個人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5年 정
도 해서 자기네들 投資한 돈을 과연 뽑을 것인가 지금 걱정
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投資해 놓았습니다.
什器라든가 하는 것이 책상, 의자 몇 億은 이런 것을 전부 다
사가지고 온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問題는 우리 委員님께서
指摘하신 대로 앞으로 할 때 再檢討를 해서 그렇게 措置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어 볼게요, 지금 현
재 施設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施設費用은 어디서.....

○庶務課長 金光秀; 施設은 全般的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러니까 施設은 크라운호텔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지요?

○庶務課長 金光秀; 아니, 중요한 施設의 경우만 하고요. 예
를 들어서 委員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昨年度에 修
理한 커피숍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内部修理하고
한 일종의 인테리어 部分에 해당하는 자기네들 돈 가지고 했
습니다, 전부다.

○李載震 委員; 그래서 앞으로 지금 施設된 것을 자기들이 원
하는 대로 할 때는 자기들 施設費를 들여서 해야지, 우리는
개주고 개밥그릇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5年間 지금 현재
새로 施設해 놓고 收入金 받아 놓고 보면 다음에 가서 施設
을 다시 하면 아무 것도 없이 오히려 더 赤字를 가져오는 이
러한 事例가 되기 때문에 施設問題도 심각하게 좀 실속있는

그러한 賃貸를 해야지, 지금같이서는 도저히 奉仕하는 것이지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庶務課長 金光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78年度 4月 14日 되어서 한 17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 建物이 老朽化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修理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年次的으로 현재 修理를 하고 있습니다. 昨年에는 세종홀, 今年에는 세종레스토랑을 이렇게 修理를 하는데 大規模 修理의 경우는 저희들이 해주고, 자기네들이 營業上 필요한 修理의 경우에는 자기네들 돈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간에 指摘하신 대로 앞으로 전부다 參考해서 反映하도록 措置 하겠습니다.

그리고 清掃用役期間에 관한 問題는 그 問題를 적극적으로 檢討해서, 사실상 指摘하신대로 입니다. 1年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금방 끝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問題가 많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職員에 관한 問題는 사실상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에는 한 一般職員의 경우 한 250名 되었는데 230名, 그리고 지금 210名이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人員은 차츰 차츰 줄이고 있습니다.

昨年の 경우에도 請警 12명을 줄였고, 우리 一般職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줄여서 210名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人力診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部分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줄여나가서 實質的인 經營이 될 수 있도록 措置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趙相勳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相勳 委員; 오랜 時間 수고 많으십니다, 趙相勳 委員입니다.

다.

94年度 不定額 中에 演劇團 未創團으로 不用額이 남았지요, 5億 정도 남았지요?

○庶務課長 金光秀; 네, 그렇습니다.

○趙相勳 委員; 93年度에도 역시 그 金額이 豫算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안 잡혀 있었습니다.

○趙相勳 委員; 94年度에 처음 잡혀 있었습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돈은 저희 世宗文化會館에서 計上된 豫算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에 계셨던 委員님께서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文化觀光局 그쪽 豫算에 잡혀 있다가 우리 藝術團體가 世宗文化會館에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우리 世宗文化會館으로 넘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編成하지도 않으면서 不用額이 생기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趙相勳 委員; 94年度에 不用이 되었고, 95年度 올해의 豫算은 어땠습니까? 올해 豫算에 잡혀 있습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올해는 豫算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趙相勳 委員; 이 豫算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네.

○趙相勳 委員; 그러면 文化觀光局에서도 이 豫算이 없습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네, 없습니다. 來年度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趙相勳 委員; 來年度에는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文化觀

光局으로 갑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來年度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世宗文化會館으로 編成될 것 같습니다.

○趙相勳 委員; 그러면 世宗文化會館에서 豫算이 編成되니까 創團의 計劃을 역시 世宗文化會館에서 갖고 계신가요?

○庶務課長 金光秀; 네, 方針이 決定되어서 저희들에게 내려 오게 되면 그 方針에 의해서 저희들이 創團을 하게 될 것입니다.

○趙相勳 委員; 제일 큰 問題가 지금 主要施設 中에 演劇이나, 大講堂은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中講堂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會館內에 中講堂을 設置할 수 있는 空間이 있습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空間이 없습니다.

○趙相勳 委員; 연습실, 其他 空間을 다 합쳐도 안 나오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8個 藝術團體 以外の 다른 藝術團體가 들어왔을 경우에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問題化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檢討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趙相勳 委員; 中講堂 같은 적당한 규모의 公演場이 없이 그냥 創團만 해도 가능할까요?

○庶務課長 金光秀;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劇團의 경우에는 2,000席까지 메우는 演劇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小講堂이 522席입니다. 전에 文藝振興基金을 받아서 演劇을 우리 小講堂에서 몇 번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냥 몇 사람 데려와서 유명한 배우가 와서 그 坑수를 채우는 것을 봤습니다. 이 경우 劇團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

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演劇을 위해서는 별도의 中講堂 같은 것은 별 필요가 없고, 現在의 小講堂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趙相勳 委員; 아마 그 部分은 저희가 곧 藝術團體長과 懇談會를 할 때 다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사실 文化에 대한, 文化 公演에 대한 어떤 立場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文化藝術團體를 바라보는 시각이 慰問性 行事 또는 展示性 行事의 형태가 많았고, 실제로 市民들도 이런 文化藝術團體와 함께 어떤 文化的 欲求를 충족하는 手段이나 施設로서의 機能을 하지 못하는 側面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全般的으로 달라져야 되겠지만 특히 文化藝術團體를 運營하는 시각이 補助金 조금 주고, 구색삼아서 團體만 갖춰놓은 식이 아니라 진짜 市民과 접할 수 있는 그런 市民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文化公演이 많이 企劃되고, 또 施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側面에서 사실 事務局長님한테도 助言이랄까, 當付랄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秘書室長이 예전에 4級에서 아주 便法的으로 3級 別定職으로 盧局長이 秘書室長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市長 秘書室과 秘書室長의 役割이 業務連絡이나 日程調整이나, 그야말로 秘書의 役割이었다고 그러나요? 그렇다면 지금 專門經營人을 끌어들여서 秘書室長으로 앉히고, 行政2副市長도 專門經營人 出身으로 앉혔지 않습니까? 經營行政, 또 앞으로 서울市政도 획기적인 모습으로 달라진다고 할 때 단지 秘書室長으로 앉아서 隨行이나 뒤치다꺼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떤 既存의 經驗과 어떤 노하우를 가지

고 서울 市政 全般에 있어서 改善할 점들, 바로잡아야 할 점들, 또 새로운 方式으로 接近해야 될 것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世宗文化會館의 事務局長이자 秘書室長의 役割을 하시니까 이 世宗文化會館의 運營, 나아가서 서울市長의 公約事項인 서울市民文化센터의 設立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政策的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事業所 體系로, 部處에서 豫算 내주고 그것을 執行하는 形態의 藝術團 運營이 아니라 市民文化센터라는 形態로 藝術人들의 衆智도 모으고, 최근에 높은 企劃力이나 아이디어, 특히 文化商品化 해 나가는 그런 能力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文化界가, 그런 것들을 적극 活用하고, 市民 속으로 파고들고 하는 方式들을 어찌면 지금 秘書室長 立場에서도 市長公約事項이기도 하니까 研究해 보고, 實行에 옮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더구나 經營人 出身이라면 어떤 官僚的 思考보다는 훨씬 다른 方式으로 接近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왕 지금 事務局長으로 계신 만큼 秘書室長으로서의 役割도 마찬가지로 좀 檢討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許光泰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光泰 委員; 許光泰 委員입니다.

長時間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의 質疑로 마지막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質疑를 하겠습니다.

給與, 手當 節減이 3億 3,000萬원의 不用額을 發生시켰는데 이것은 人員 減縮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請警 12名을 減縮했다는 答辯을 들었습니다. 運營에 지장이 없는가요?

○庶務課長 金光秀; 請警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建議를 해서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世宗文化會館이 정부행사 위주에서 공연장 위주로 內容의 質이 변화됐습니다. 아직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請警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請警보다도 警備員이 있으면 되고,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이 發展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用役會社라든가 그런 데 하더라도 既存 俸給을 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너무 앞질러가게 됩니다만, 예를 들어 안내양 같은 경우에도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간다면 사람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나름대로 檢討를 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앞으로도 減縮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현재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人力診斷을 통해가지고 불필요한 部分에는 계속해서 節減을 시킬 計劃입니다.

○許光泰 委員; 다음 質問하겠습니다.

別定 및 一般職에 비해서 技能職의 人員이 훨씬 많습니다.

技能職을 보면 運營要員 77名을 제외한 나머지 76명은 어떤 部署에서 무엇을 합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방호원이라고 해서 警備하는 사람이 전부 技能職으로 되어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防護員이요?

○庶務課長 金光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오면 문에 전부 다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案内員들의 경우도 전부가 다 技能職입니다. 案内員들은 다 技能職이고, 그 다음에 建築, 交換, 通信, 電氣, 機械, 映寫, 運轉, 打

字, 검수표 이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技能職으로 되어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常時勤務를 필요로 합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그 부분에 대해서 建築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 建築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에서 무대를 짠다든가 할 때 그 建築員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常時 필요하고, 通信이라든가 電氣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公演을 하기 때문에 역시 필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案内員, 검수표 이런 경우에는, 藝術의 殿堂은 常時 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運營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 저녁에만 검수표를 하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은 필요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檢討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서 常時勤務를 함으로 해서 豫算의 浪費性을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그것은 현재로써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豫算의 消費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許光泰 委員;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 防護員, 警備員, 案内員, 검수표 勤務要員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常時 勤務함으로써 豫算의 浪費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限時勤務를 적극 檢討해서 豫算의 節減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貴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庶務課長 金光秀; 常時勤務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人力診斷을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常時勤務를 하지않더라도 世宗文化會館 運營에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檢討를 해가지고 나중에…….

○許光泰 委員; 결론짓겠습니다.

人員을 減縮해서 豫算을 節減하는 것도 效果的인 運營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常時勤務로 인해서 豫算을 浪費하는 部分을 限時勤務制로 전환해서 人員의 減縮보다는 效果的으로 運營할 수 있는 方案으로 講究되었으면 하는 代案을 提示합니다. 이상입니다.

○庶務課長 金光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劉大運 委員; 제가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劉大運 委員 말씀하십시오.

○劉大運 委員; 사실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世宗文化會館 運營問題에 대해서 資料를 보았더니 조선호텔에서 世宗文化會館 開館 이래 계속하다가 거의 無償으로 이렇게 運營을 한 것을 확인했는데 돈을 조금 받기는 받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8,000萬원 되었습니다.

運營을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갖다 놓았다고, 그것을 다시 연결해서 보니까 勞動組合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잔뜩 배치해 놓고 運營이 안 되니깐 세를 못 올려준다 이런 뜻이어가지고 結果적으로 入札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이태원 밑에 크라운 호텔 거기 주었죠?

○庶務課長 金光秀; 네.

○劉大運 委員; 世宗文化會館은 우리 나라 주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機關임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質이 떨어

지고 있다는 얘기죠, 質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世宗文化會館의 價値觀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契約管理 5年 長期契約 締結된 事項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없어요. 世宗文化會館 하나 뿐이에요. 그래서 對比를 해 봤습니다.

첫째, 西大門自治區에서 運營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公演이 있었는데 이름은 다르더군요. 이 運營의 問題와 區民에 관한 問題와 또 다섯개 區의 對比表를 봤는데 道峰區의 경우에 그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런데 年間契約입니다. 이것을 翌年 1月 賃賃料가 무려 1億 2,600萬원이 나온 入札입니다. 入札을 自體 自給自足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前年度와 今年度와 來年度를 比較해 보았을 때 그 歲入이 約 30% 增加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世宗文化會館 세종홀은 첫째, 호텔을 특급수준으로 올라가면서 歲入을 增大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 方法은 무엇이냐, 누구나 納得할 수 있는 公開入札費는 가 능하다는 얘기죠. 答辯 簡略하게 해 주십시오.

○庶務課長 金光秀; 우선 첫 번째 本人이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선호텔과 크라운호텔의 차이가 市收入의 경우에는 조선호텔에서 利益金을 基準으로 했습니다. 돈을 내준 나머지의 利益金을 가지고 저희들이 잡았는데, 크라운호텔의 경우는 賣出이 많아가지고 賣出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2億 5,300萬원 未滿이라 할 경우도 300萬원 해서 2億 5,300萬원이 항상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改善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問題는 제일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賃賃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公開競爭入札을 했는데 賃賃料가 너무 비싸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世

宗文化會館이 光化門 中央에 있고 石造建물이 되어서.....

賃貸料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書面으로 報告드리겠습니다만, 賃貸料가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그 賃貸料를 물고 우리 豫定價格에 入札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1坪도 안 되는 그런 적은 面積을 1년에 조금씩 빌려줍니다만.....

○劉大運 委員; 아닙니다,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入札過程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建物を 鑑定을 해서 鑑定價에 의한 歲入을 策定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建物 세종홀에 대한 運營과 관련되어서 公開入札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서울市廳이나 自治區에서 商業銀行과 같은 경우에 전부 다 店鋪 하나씩 쓰고 있어요. 그것이 建物單價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거의 공짜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전연 다른 問題에서 접근해가지고 公開入札을 하면 한정을 하는 거죠. 制限公開入札 하는 것입니다.

條件은 특급호텔이상, 그럼 일급호텔이 끼어들지 않죠. 두 번 써내는데 최고 많이 써내는 사람을 세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 問題 없이 運營制度改善이 되고, 歲入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庶務課長 金光秀; 잘 알겠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 問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劉委員이 한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서울市的 立場, 方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급호텔이 조선호텔하고 신라호텔 몇 군데가 있는데 담합을 해가지고 入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급이 아닌 일급호텔까지도 入札을 해가지고 각 호텔을 통해 公文을 내도록 해가지고 호텔은 전부 이대로 해

서 入札을 해라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서 크라운호텔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公開入札은 분명히 하는데, 우리 文化教育委員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한 가지 理由는, 처음에 이 조선호텔에 2億원을 주면서 運營하도록 했습니다만 특급호텔이면 뭐 합니까? 빈 손으로 깡통만 찬 사람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특급호텔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賣上高도 자기 통장에 넣었다가 6個月 후에 市에 入金하고 말이죠, 정말 不合理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制度를 이만큼 하기 때문에 지금 改善해 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급호텔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특급호텔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호텔에서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일급인 크라운호텔이 응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현재의 立場으로써는 어려운 與件에 처해가지고 크라운호텔이 오게됐다.....

○庶務課長 金光秀; 분명히 公開入札을 했습니다. 이때도 一級 호텔에 제한경쟁을 해가지고 決定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委員님께서 指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최선의 方法을 講究해서 論議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世宗文化會館所管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劉大運 委員; 委員長님, 10分間 停會했다가 합시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世宗文化會館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는 인사를 조금 이따가 하시고, 退場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庶務課長 金光秀; 고맙습니다.

4. 公報官所管1994會計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 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16時 15分)

○委員長代理 鄭韓植;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公報官所管 1994會計年度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本 件은 第81回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第2次 文化教育委員會時 上程하여 執行부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및 質疑 答辯을 들은 바 있으므로 바로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公報官所管 1994會計年度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5.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採擇의件

(16時 16分)

○委員長代理 鄭韓植;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 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95年度 11月 21일부터 9日間 實施되는 行政事務監査는 議會의 執行部에 대한 監視, 牽制機能의 핵심이 되는 內容으로 매우 큰 意義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同 事案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委員會 懇談會時 計劃書 草案을 既 配付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충분한 檢討를 마쳤으리라 판단이 되므로 별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計劃書 內容대로 採擇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劉大運 委員; 잠깐요, 지금 委員長님께서 읽어내리시는데 날짜 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것만 다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委員長代理 鄭韓植; 95年度 11月 21일부터 9日間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

(뒤에 실음)
.....

○委員長代理 鄭韓植; 이상으로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17分 散會)

○出席委員

安順德	鄭韓植	孫馥	金享根
徐在浣	梁東錡	劉大運	李善宰
李英順	李載震	林鍾化	許光泰
魚潤慶	林靜枝	趙相勳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市立大學校

總長	金鎮炫
事務局長	閔庚台
教育課長	吳世朱
公務員教育院長	孫長鎬
世宗文化會館	
事務局長	盧俊燦
庶務課長	金光秀
管理係長	韓秉龍
經理係長	姜永昌